夕刊
朝鮮日報
本紙朝夕刊合八面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對聯盟關係又復緊張

中國援助案成立은 反日氣勢의 再現

日中問題에 及할 影響으로 外務省極히 重大視

【電通東京二十七日發】 國際聯盟이 過般巴里에서 國際經濟會議中國代表宋子文의 要請에 依하야 中國各般의 政府事業의 技術的 援助에 關한 決議案을 可決하얏는데 右援助案의 背後에는 聯盟內部의 反日分子와 宋子文과의 提携에 依한 政治的 反日運動이 潛在되어 잇슴이라 하야 日本外務當局에서는 『아베롤』 聯盟事務總長에 對하야 日本政府의 態度를 表明하기 爲하야 伊藤事務局長代理에게 十八日 同訓令을 發하얏는데 『아베롤』 總長은 右決議案은 全혀 中國에 對한 技術方面의 援助에 止하며 政治的 意義는 全然無한 旨로 回答하얏다 그러나 日本外務省은 國際聯盟脫退에 因하야 孤立된 日本의 國際情勢를 逆用하야 宋子文이 技術援助에 藉名하야 排日的 行動에 出할 時는 斷乎한 措置를 講할 意嚮을 有하며 本決議案의 成行에 關하야 如次한 觀測을 持하고 잇다

一、今回 決定한 聯盟의 中國援助는 同委員會發表의 『콤뮤니케』에 明記한 바와 如히 聯盟의 中國에 對한 協力의 指導原則은 全然技術的 又非政治的 基礎上에 立함으로 따라서 政治的 助力에 與함은 絶對不可有이다

一、그러나 同案可決에 盡力한 宋子文은 過般來 國際經濟會議代表로서 歐米에서 排日을 目的하고 政治的 軍事的 借款의 成立에 狂奔하고 또 同決議案에 따라 派遣된 專門委員長 『라이히만』 聯盟保健局長은 有名한 反日的 分子임으로 彼等의 行動은 規定된 範圍를 逸脫하야 反日的 策動에까지 發展될 危險이 充分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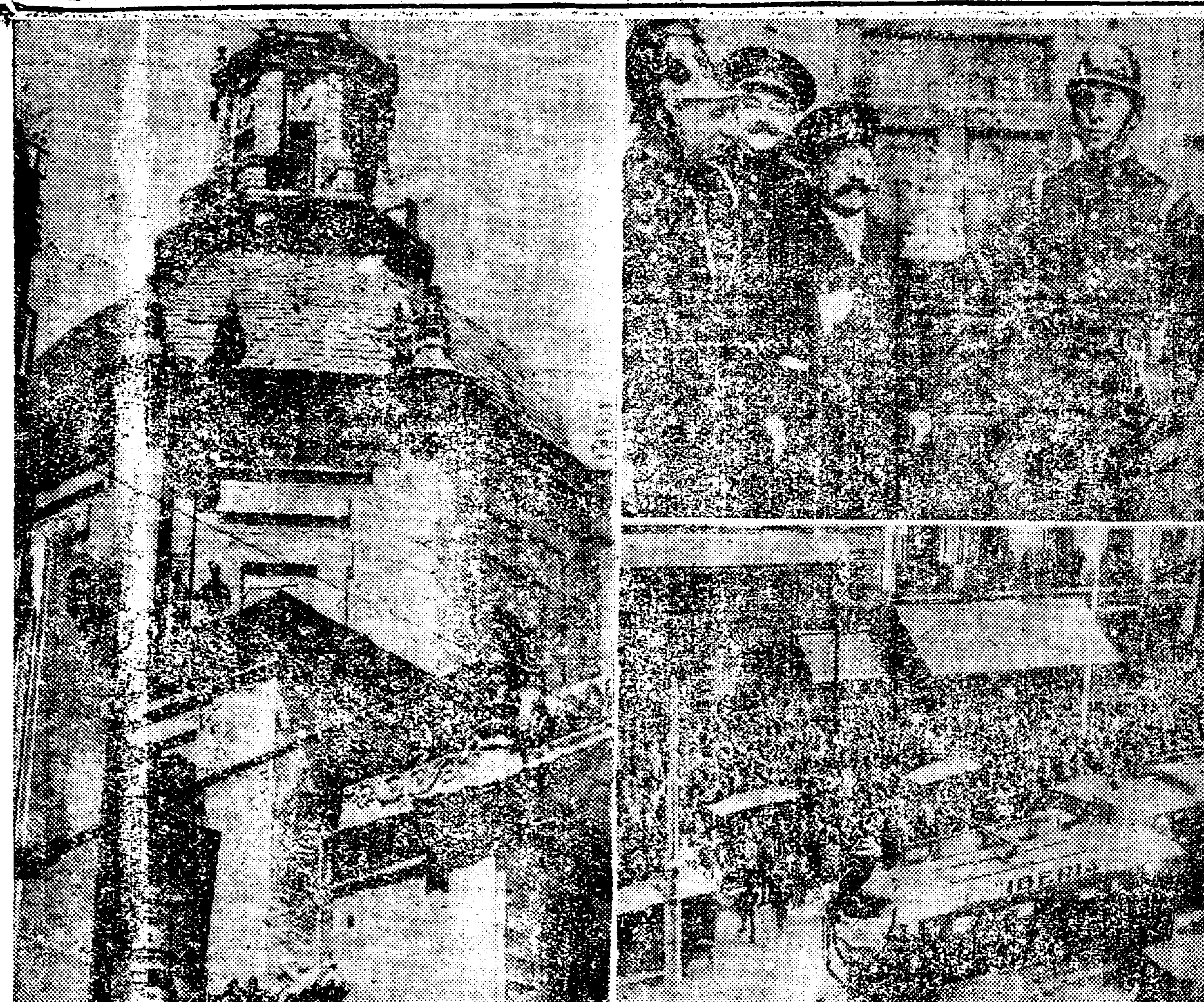
一、日本은 隣邦中國이 如斯한 行動에 對하야서는 斷乎한 反省을 求할 것이며 事態의 如何에 依하야 適當한 措置를 取할 것이다

經濟會議 最終會議日程

【聯合倫敦二十六日發】 波瀾을 極한 經濟會議는 事實上 何等의 成果를 收하지 못하고 二十七日 午前十時부터의 本會議에서 大團圓이 되기로 되엿는데 二十七日 午前午後에 連한 最終本會議의 日程은 左와 如히 決定되엿다

一、通貨金融委員會의 報告
二、經濟通商委員會報告
三、休會中의 繼續機關 其他에 關한 十六幹部會의 報告
四、一般討議
五、맥도날드議長의 演說

一般討議에는 九個國代表가 發言을 通告하얏스나 日本은 아직 通告하지 안엇다



海外寫眞

一尺의 胸像이 政治問題化 『마드리드』市 『라쓰카리토라프쓰』寺院 頂上에 西班牙皇帝 『알폰조』 十三世의 胸像이 아직도 서 잇는 것이 共和派間에 問題가 되여 그네들로 수 업다고 消防隊를 식혀 헤여버리게 되엿는데 그 스나 一尺이나 되는 것이 百數十尺이나 되는 圓形屋根에 잇는 것임으로 危險하기 짝이 업는 作業이다 이것이 마츰 群衆의 歡呼를 바더 …… 훌륭한 센세이슈날하고 참한 歐洲各國의 話題거리가 되엿다 …… 寫眞은 一、胸像을 헤여버리기 爲하야 危險을 무릅쓰고 百尺 놉히 올라간 消防隊 二、『聖心像』과 寺院前에 모인 群衆

歷史的으로 본 中國의 混亂

(1) 方濬模

◇

歷史的 循環的 變轉이란 觀念은 印度『우파니시아드』의 影響을 受한 쏘펜하우어를 通하야 『니체』의 永劫的 輪廻 (Eternal Recurrence) 에 吾人은 接見한다 다시 『슈펭글러』(O.Spengler)의 名著 西方文化의 沒落 (Der Untergang Des Abendlandes) 에서 顯著히 發展되어 잇다 即 歷史는 諸種의 一定한 因子에 依支되야 必然的 結果를 發生하며 다시 이 絶好的 必然性의 史的 變展은 一國의 全世界의 나의 文光을 分割하야 觀察한다면 大體로는 同一한 結果狀態를 反復한다는 것이니 即 이것이 運命 (Schicksal)이다 이 學說이 如何한 程度까지 經驗的 事實에 證明되는지는 相當히 懷疑할 餘地가 不無하다

그러나 中國을 理解하라 함에는 吾人은 이 歷史上 必然的 輪廻說을 利用하지 안흐면 안된다 그럼으로 他人이 中國을 가르켜 混亂의 中國, 動亂의 中國, 無政府의 中國, 法治國 (Rechtstaat)이 아닌 中國이니 하는 名稱으로 이 世界의 最老國을 罵倒한다 그러나 吾人이 非難하는 바는 此等 名稱이 不妥當하다는 것이 아니다 도로혀 相當히 妥當하다 하겟다

◇

그러나 大體로는 吾人은 이 罵倒에 止하며 進一步하야 其因果의 關係를 理解치 못한다면 可惜不已한 것이다 英諺에 一切를 理解함은 即 이를 容許함이라 한다 (To know all is to Excuse) 現下의 中國을 容許하지는 못하드래도 至少 이를 理解치 안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吾人과 密接한 關係를 가진 中國의 將來를 了解하라면 現下 中國의 地位를 理解하여야 될 것이며 그러하자면 其過去 歷史의 變轉도 研究하여야 될 것이다

◇

天下合則必分, 分則必合은 諸葛亮의 中國歷史의 一切를 終結한 名言이다 中國의 政治歷史는 統合과 分, 統一과 分裂 昇平과 混亂의 交替뿐이다 黃帝以降 今日民國二十二年까지의 全部가 이에 不過한 것이다

黃帝는 分裂散在되어 잇는 諸侯를 統一하얏고 堯舜禹湯時代를 經過한 周代에 至하야 武王은 武力으로 全國을 統一하얏다 다시 周末의 分裂은 春秋戰國時期를 經하야 秦始皇에게 統一되엿스나 다시 分裂되여 二代十五年을 僅過하야 漢高祖로 統一되엿다 漢末의 三國鼎立을 지나 晋朝에 統一되엇던 中國天下는 五胡十六國의 群雄割據를 經하야 隋朝에 統一되엿다 또 一時 混亂을 지나 唐朝에 統一되엿스나 五代十國의 亂世를 지나 宋朝에 또 統一되엿다 蒙古族에게 宋朝는 滅亡되엿스며 一世紀의 國命을 繼續치 못한 元朝를 이어 또다시 混亂을 經하다 方國珍, 韓山童等의 分立을 지나 朱元璋에게 明朝로 다시 統一되엿다가 滿洲에 入하야 淸朝로 統一되엿다 以上은 中國政治의 交替를 不免하는가?

◇

이 問題를 解答하자면 엇지하야 統一된 朝代가 分裂되는가 하는 것을 究함이 必要하다 歷代中國의 所謂 朝代라는 것은 相當한 時期를 經過하고는 必滅할 必然性을 가지니 이는 單純히 財政衰弱에 因함이다 今日까지의 中國은 主權者인 帝王과 그의 巨大한 一族인 王室과 政府가 同一한 것이다

三者는 財政問題上으로는 이 消費團이다 即 이 三存在는 完全한 消費機關이며 生産力은 一毫도 無한 것이다

그리고 그 消費物의 出處는 稅納이다

그런데 帝王은 個身은 大體로는 被擁立하고 一時 天下의 大權을 把握한 後에는 無規律하게 消費한다 秦始皇의 阿房宮이며 隋煬帝의 迷宮 大運河이며 等이 好例이다

如此히 生産無한 消費量이 一定한 時期까지 하고는 必然的으로 財政窮乏을 難免이라 따라서 苛稅誅求는 日加月增되다 그結果로 一般百姓은 不安과 恐慌으로 지나게 되며 不平分子는 聚集結黨하야 掠奪하기 始作한다 그런데다 淸末의 太平天國亂 義和團事件等에서 中國人民의 注意를 惹起한 爆發性 (Period Outburst) 이 火上添油로 一種의 週期的 爆發을 不平分子의 組織에 應한 것이다 漢末의 黃巾賊 元末의 紅巾賊 淸代의 太平天國亂 今日의 紅槍會等이 이것이다 國運衰殘이란 것은 財政窮乏 苛稅, 一般의 不平, 土匪의 必然的 因果를 指示함뿐이다 다시 이 土匪를 細察한다면 一朝代의 衰弱에 臨하야 許多한 群이 處處에 發現된다 그런데 武力과 財力의 後援이 適當한 一人이 其他의 同類를 消滅하고 自立하야 帝王이 되며 國號年號를 定하고 社稷을 設하고 文弱한 學者輩를 利用하기 始作한다 이것이 歷代의 國朝이다

◇

이 國朝는 生産이 無함으로 또다시 顚覆되다 中國은 今日까지 이 必然的 歷史變轉의 循環的 支配를 重複하야 受하야 온 것이다

◇

그러면 이 帝王의 候補者를 包含한 土匪群이란 무엇인가 大括的으로 言之하면 黃帝時의 一萬餘侯 周初千八百諸侯, 春秋五霸, 戰國七雄, 秦末의 項羽, 劉邦等, 漢末의 三雄, 五胡時代의 十六豪傑, 隋末의 李密 李淵, 李世民父子等, 唐末의 五代十國, 宋代를 지나 元末의 朱元璋, 禍通, 韓山童等이다 諸侯나 土匪나는 政治舞臺上의 役割로는 分別이 無한 것이다 今日의 中國에서 軍閥이라는 것도 亦是 이것이다

協力委員會首班인 라氏는 極端排日家

外務省派遣中止를 提議

【聯合東京二十六日發】 日本政府는 먼저 宋子文의 策議에 因한 列國의 對中援助政策에 斷乎反對를 表示하얏는데 今回 다시 聯盟의 對中協力委員會中國派遣에 對하야 右委員會가 必然 中國의 政治的 援助를 하는 것이라 하야 聯盟事務總長 『아베롤』氏에게 嚴重警告를 發하고 協力委員會首班 『라이히만』氏가 陰險한 排日家임으로 派遣을 中止하기를 提議하얏다 그러나 今回 聯盟으로부터 政府에 適한 回答에 依하면

一、對中協力委員은 前例가 잇스며 그 活動性質範圍는 技術的에 止하고 日本政府의 抗議를 受하는 性質이 아님

一、『라이히만』氏의 態度에 關하야도 勿論 政治的 範圍에 不出하며 日本의 指揮를 受하지 안는다

고 頑히 誠意를 缺하고 잇슴으로 日本政府는 聯盟의 東洋平和를 確立하라는 日本의 努力을 解치 못하고 오히려 一方的 對中活動을 行할 時는 實力行使를 敢辭치 안는다는 決意를 有함으로 中國問題를 繞하야 日本政府와 聯盟關係가 다시 緊張하게 된 形勢로 되엿스나

石井全權演說

【聯合倫敦二十五日發】 日本代表部에서는 二十五日 幹部會終了後 全權會議를 開催하고 二十七日 總會에서 萬一 機會가 잇스면 石井全權이 再度 經濟會議에 對한 日本의 一貫한 主張인 最惠國條款의 無條件適用及通商障礙撤廢의 大原則을 力說하기로 決定하엿다

日印協議會後에 日英協議再開

英貿易次官聲明內容

【聯合倫敦二十五日發】 英國貿易次官 『버-겐』氏는 二十五日 日英日印協議會에 關하야 左와 如한 聲明을 하엿다

日本綿業者는 一定制限下에 關係産業間의 討議案에 同意를 表明하엿나 英國은 最近 日本에 對하야

一、近間 印度에서 란카샤 印度代表의 間에 日本과 英國及印度가 制定關係를 有한 植民地를 包含한 全分野에 亘하야 討議를 行할 것

一、印度에서 討議後 直時 英國에서 日英兩當業者代表間에 其他 織物市場에 關하야 討議를 行할 것

의 提議를 行하엿다 日本政府는 日本綿業者를 代表하야 此英國提案을 受諾하야 關係當業者間에 滿足한 協定이 成立될 것을 衷心으로 希望한다

以上의 聲明에 依하야 明白한 것과 如히 英國政府는 日本品에 對하야 먼저 日印協議會를 開催하고 다시 란카샤의 代表를 參加식힐 것 다음에 日英協議會를 開催하야 全織物市場에 亘하야 協議를 식힐 것을 提議한 것이 明白히 되엿다

英랑카샤棉業聯盟

關稅引上을 請願

日本品排擊을 主眼으로 强硬意思露骨表現

【電通東京二十六日發】 在『리버풀』 野田領事로부터 二十六日 外務省에 達한 報告에 依하면 『랭커샤』 綿業聯盟은 近間 左와 如한 請願書를 提出하게 되엿다

一、諸外國及英屬領의 關稅改正時 特히 印度의 關稅를 歲入關稅의 程度에 引上한다

二、英帝國全部에 亘하야 日本其他 生活標準이 低한 國의 商品에 對하야 英國의 綿業이 十分競爭할 수 잇는 程度의 關稅를 賦課하게 直時 適當한 措置를 講한다

右請願書에 依하야 特히 日本製品을 絶對로 排擊하려는 意向을 露骨的으로 表現하엿다

【聯合東京二十六日發】 二十六日 『리버풀』 野田領事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랭커시샤』 綿業聯盟은 七萬一千名의 連署로 近間 議會에 英帝國全部에 亘하야 日本其他에 對하야 英國의 綿業이 充分競爭할 수 잇는 程度의 關稅를 附加할 것 其他 自國産業防衛에 關한 請願을 하게 되엿다는 模樣이다

右는 英植民地에 對하야 英國製品의 輸出에 便하게 外國特히 日本品에 自國製品을 擁護하려는 方針을 端的히 表明하야 그 重要한 政府當局뿐만 아니라 民間側도 同樣强硬意見인 것을 暗暗리 미리 日本에 對하야 意志表示를 한 것으로 大端히 注目할 必要가 잇다

심라會商代表 八月二十四日에 出發

【電通東京二十六日發】 日印 『심라』 會商官民代表는 아직 正式으로 決定되지 못하엿스나 政府로서는 印度議會終了後에 到着하는 便이 交涉에 便利하다고 하야 大體 八月二十四日 白山丸으로 出發할 方針이다

蘇聯側事情으로 私的會談도 中止

蘇滿會商아주停頓

【電通東京二十六日發】 二十六日의 北鐵讓渡第六次會商은 蘇聯首席代表 『유레네프』大使의 病으로 延期하게 되야 同日午後 大橋外交部次長 『카즈로프스키』氏間에 私的會談을 行하기로 되얏든바 이 私的會談도 蘇聯側의 事情으로 中止하게 되엿다 그 理由는 『유레네프』大使의 病外에 『쿠즈네초프』氏도 病으로 會議進行上 事務的 故障이 생긴 것이라고 蘇聯側에서는 發表하엿다 또 今後 公式及私的會商日程 其他는 目下交涉中이다

米國의 新造艦計劃

滿三個年에 完成

스海軍長官의 言明

【華盛頓二十六日發】 米國海軍長官 스완슨氏는 二十六日 産業復興法에 依한 二億三千八百萬弗의 新造艦計劃의 完成年度에 對하야 左와 如히 言明하얏다 最近 實施된 造船業法에 依하야 民間造船所의 就業時間은 一週三十二時間制가 採用되고 政府直營의 造船所도 아마 同樣의 就業時間이 될 것에 不拘하고 新造艦計劃은 滿三個年으로 完成하고 一千九百三十六年 夏까지 새로 海上으로 威壓케 될 豫定이다

武藤元帥容態

關東軍發表

【電通新京二十六日發】 二十六日 午後六時三十分 關東軍司令部發表 武藤元帥는 奉天, 旅順, 寬城等의 駐屯部隊의 巡視를 終하고 歸京後 二十二日 輕微한 胃腸障礙가 잇슨 後 二十三日 黃疸症이 現하야 醫師는 肝臟部에 疼痛을 感하며 輕度의 發熱이 有하다 二十四日及二十五日의 午前은 無熱로 一般症狀輕快를 呈하얏스나 二十五日 午後에 至하야 다시 發熱, 二十六日 正午 高溫三十九度五分 脈搏百三十 目下百方盡力하야 治療의 萬全을 期하는 中이다

武藤元帥絶望

【電通東京廿七日發】 某所入電에 依하면 關東軍司令官 武藤信義元帥는 全혀 絶望狀態에 陷하엿다 (午後零時四十七分發)

武藤大將에게 男爵奏請模樣

【電通東京二十七日電話】 關東軍司令官兼關東長官特命全權大使元帥陸軍大將從二位勳一等功一級 武藤信義氏는 從來 教育總監으로 多年 軍事教育에 盡瘁하고 更히 滿洲事變後 特히 軍事上에 盡力하야 偉大한 功績을 嘉하사 特히 勳功으로 男爵을 授할 消息이 잇다 따라서 荒木陸相은 二十七日 午前九時十五分 齋藤首相을 訪問하고 此旨를 議論한 바가 잇섯다 二十七日中에는 爵位奏請의 手續을 執하고 宮省에 對하야 正式御裁可를 仰할 模樣이다

武藤元帥의 後任

林大將說有力

教育總監은 眞崎가 順序

【電通東京二十七日發】 全혀 絶望狀態에 陷한 武藤元帥의 後任으로는 軍事參議官 菱川大將 又는 教育總監 林銑十郞大將이 決定될 模樣으로 現在는 林大將說이 有力하나 더욱 林大將으로 決定되면 教育總監에는 軍事參議官 眞崎大將이 推戴될 順序이다

八面錄

駐滿全權武藤元帥危篤의 報가 傳하니 벌서 後出物色이 口頭에 오른다

◇

武藤氏는 荒木陸相을 中心으로 한 軍部中心勢力의 焦點이엇스니 氏가 絶望이라 하면 거기에는 重大한 損失

◇

後任에는 林大將說이 有力하다 하나 林氏는 所謂 中立派로 看做되는 人物

◇

朝鮮軍司令官으로 잇다가 齋藤內閣의 陸軍大臣이 될 번 하엿던 이인데 이번도 아니될는지

經濟會議의 뒤에오는 것

世界를 風靡하는 國家的經濟主義

(3) 梁心山

國家的經濟主義의 趨向

讓步할 것이 업는 줄을 잘 아는 高橋藏相은 世界經濟會議의 所謂 『協調』가 將次 失敗에 도라가려는 機運에 處하여 잇는 것을 미리 認知하고 아프로 取할 自國의 經濟政策을 다음과 가티 規定하엿다 『國際經濟會議도 한 것이 되고 말엇다 그러나 이와 가티 된다면 各國이 다 貿易第一主義의 經濟政策으로부터 國內繁榮에로 轉換하지 안으면 아니된다 國內의 生産消費를 旺盛히 하야 從來와 가티 貿易에 依賴치 안어도 견데갈 수 잇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과 가튼 時勢에 잇서서 우리 經濟政策이 엇보는 곳이다……』

佛議會가 英國商品을 主眼으로

最近의 報導는 하는 六十六種의 輸入品에 對하야 三割乃至十五割의 關稅引上案을 通過시켯다고 傳한다 『달라디에』 佛首相이 아무리 『佛蘭西는 何等 經濟的 鎖國主義乃至自給自足主義를 採用하지 안는다고……』 高言하지마는 實際에 잇서서 그는 自己의 意思와 獨立한 國際間의 經濟關係에 强要되여 이와 가튼 國際的 流通路를 攪亂하는 政策을 實施치 아니치 못하게 되엿다 列國에 가장 恐慌의 打擊이 微弱하고 豊富한 金本位維持에 잇서서 盟主가 되여 잇든 異彩가진 佛蘭西가 이미 그러한지라 恐慌에 恐慌을 거듭하는 米國이 그러함은 再言할 必要가 업스며 過去의 尊嚴을 스사로히 放棄하고 一九三一年九月에 金本位를 停止한 英國이 또한 그러치 안을 理由가 업다

우리는 이미 이와 가티 하야 世界가 『戰後資本主義의 初期에 잇서 保持하고 잇던 世界經濟의 相對的 統一을 打破하고 個個의 封鎖的인 國民經濟體로 이것을 急速히 分解케 하야 『經濟的國民主義』의 波動을 더욱 더 (No(二))』 (世界經濟情報) 諸國이 實施하고 잇는 諸經濟政策―例하면 保護貿易主義, 關稅戰等等에서 본다는 것을 말하엿다 그 中에서도 가장 顯著한 것은

保護貿易

主義나 今日의 것은 資本主義發展初期에 잇서서의 그것과 意義를 全然 달니하는 것이다 今日에 잇서서 保護主義의 使徒인 『푸리드리히·리스트』가 말하든 一時的 方法으로서의 育成的 關稅政策을 보지 못한다 그리하야 『萬一 從來의 關稅가 防禦를 目的하고 잇섯다고 보면 現今의 關稅는 攻擊을 目的하고 잇다 萬一 以前에는 國內의 生産이 世界市場에서 競爭에 堪當치 못할 商品이 關稅로 保護되엿다고 하면 今日은 正히 가장 競爭에 對하야 能力(부하련) 잇는 生産部門이 保護되고 잇는 것이다』 이와 가티 하야 激化하여 가는 世界市場의 競爭과 國外市場의 狹隘化에 依하야 採用되여 잇는 超保護主義的 獨占은 一方에 잇서서 國民의 購買能力을 低下시키는 同時에 他方에 잇서서 世界的 對外貿易을 麻痺시키며 그우에 또 不可避的으로 그것을 漸漸 더 制限하게 된다 現下 世界的으로 擴大하여 가는 『카르텔』의 獨特한 産出 政策 『덤핑』은 이와 가튼 事態下에서 發生된 것이다 이 『덤핑』은 競爭을 새롭고 큰 規模에 잇서서 再生産하고 激化한다 現代의 『덤핑』은 그것이 『카르텔』의

經濟政策

公式에 國家의 何等 다름이 업다 그러므로 그는 國內의 消費者를 犧牲하고 어든 補足的 利潤에서 原價보다 低廉한 價格으로 國外市場에서 競爭할 可能性을 『덤핑』 國資本家에게 保障한다 一國이 이것을 實施하면 그 侵略을 바든 相對國은 反『덤핑』的 政策을 세운다 그리하야 國家와 國家 사이에 關稅障壁은 高速度로 노파가지 안을 수 업게 된다

關稅障壁은 亘하야 經濟關係의 모든 部面에 採用되여 잇는 經濟的 手段과 아울러 工業國으로 하여곰 農産物輸入을 制限하고 農業國으로 하여곰 工業品輸入을 制限하는 結果를 짓는다 그리하야 今日의 모든 國家는 輸出만을 하고 輸入하지 안는 것 가티 되여 잇다 그러나 이는 발서 世界의 輸出入이 停滯됨을 意味한다

이제 貿易은 麻痺되고 말엇다 英皇帝 『죠-지』 五世의 開會宣言에 다음과 가튼 말이 잇섯슴을 우리는 記憶한다 『이 會議는 重大하다 모든 國家는 지금 共通된 病床에 呻吟하고 잇다 滿堂의 諸君! 이 世界恐慌에 直面하야 全世界究極의 慶福을 爲하야 協力할지어다』 그러나 그럴에도 不拘하고 이 慶福은

諸國代表

의 『協力』이 不足하엿던지 『協力』 好意가 아니엿던지 『繁榮』을 左로 돌닌 만한 好意를 못가졋던지 아니 事實은 『協力』 好意가 全然 容納될 性質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世界에서 拒否되여 버렷다 一國의 『繁榮』을 世界의 『慶福』에서 分離할 수 잇는 것이나 가티 『協調』를 버리고 『孤立』에로 轉向한 世界列國은 그리하야 國家的 經濟主義의 諸政策을 建設하기에 汲汲하고 잇다 이 傾向은 經濟會議의 失敗說이 擡頭되고 休會가 決定되면서부터 一層 高調되고 잇다

日前의 報導 (七月十五日 大阪朝日新聞紙上) 에 依하면 世界가 六大 『블럭』 經濟圈으로 分割되려는 傾向이 아조 濃厚하다고 한다 即 (1) 英帝國 『블럭』 (英本國及各自治領 植民地及 스칸디나비아諸國) (2) 北南米 『블럭』 (3) 佛蘭西 『블럭』 (佛本國, 諸植民地及佛蘭西와 密接한 關係를 가진 諸國) (4) 팟쇼 『블럭』 (獨逸, 오스트리아, 헝가리, 伊太利) (5) 日滿 『블럭』 (6) 쏘베트聯邦 에로

이것은 經濟的 情勢에 地理的 政治的 條件을 加味하야 나누어 본 것이라 한다 아즉 한 『블럭』이 結成된 것도 아니고 한 展望에 不過하나 어쩟던지 그 『블럭』이 모든 것이 다 成立되리라고는 말할 수 업겟스나 적어도 國際間의 諸

對立關係

와 特히 高級의 發展을 한 資本主義國家에 緊密한 或은 隷屬的 關係等을 考慮하야 그럴직한 報導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 『블럭』 經濟에 對하야 具體的 檢討를 避하나 그러나 어쨋던 以上으로 봐 우리는 世界各國이 다 『協調』主義를 버리고 國家的 經濟主義에로 方向을 돌니고 잇는 것만은 充分히 認識될 줄 안다

去益肆虐하는全南洪水
榮山極樂兩江氾濫
沿岸民多數溺死
警察消防隊各團體活動도無効
數百災民道路彷徨

【光州支局特電】 지난이십오일밤부터 남조선일대를 습래한 홍우는 마츰내 영산강(榮山江)상류의 극락강(極樂江)을 범람식혀 부근일대를바다를 만드럿다경찰서,소방대등은 사회단체와 협력출동하야 인명의구호에 로력하엿스나 하등의효과가 업시 다수한사망자를 내이엇다 부근일대는 전부가침수되고 류실된집도만허 거리에서 방황하며 우는피난민들이 수백명인바 본보광주지국에서는 시각을 다토아출동하야 피난민들의게 백미(白米) 등을 배급하엿다.이외에도극락강(極樂江)상류인 대와담양(潭陽) 순창(淳昌) 의하류일대와송정리(松汀里)이하영산강(榮山江)연안 라주(羅州) 무안(務安)함평(咸平)등비데가침수되야전남일대는 완연한 수국을 이루고 잇다는데 바금손해는조사중이라한다.

鼎岩江刻刻增水
宜寧一帶泥海化
二名溺死一名失踪交通總絕

【宜寧支局廿七日發電】 경남의령군(宜寧郡)에서는 지난 이십오일부터 폭우가 쏘다저나려서 정암(鼎岩)의 남강(南江)이 범람하는동시에 의령평야는 또다시 진흙물바다로 되야 사방으로 교통이 두절 되엿다 농작물의 피해는 아즉 얼마가 될는지 예측할수업는형편이다 지난번홍수의 란리를 겨근지 불과 일 개월에 또 이러한 홍수의란리를 맛나게되어 인심이 자못 흉흉하다 각처에인명의 손상도 적지 안는모양인데 이십오일오후에 의령군룡덕면(龍德面)에서 연조권매지국의녕관패소 배급인(配給人)진종도(陳宗道)는 냇물을 건느다가 빠저죽엇스며 싱거미신회사의녕분점원강수경(姜守敬)은합천(陜川)으로출장갓다가도라오는길에역시냇물을 건느다가빠저죽엇고또당군가례면(嘉禮面)에서는한명이행방불명되엿다그래서 어느곳을 물론하고인심이극도로흉흉한중이다 폭우는아즉도 (이십칠일오후한시) 계속하야 퍼붓는중이며 정암강물은각각 으로작구증수하는 중이다

仁川近海破船

【仁川】 지난이십일오후세시경에 부천(富川)군령흥면(靈興面)선재리(仙才里)에부속된 섬에서 서편으로약 이백미돌거리되는 해상에서 팔평가량의자갈을실고 통과하든중본안태랑(中本安太郞)의 소유목선 『에비스환』이폭풍우를 만나선체의파손은 물론승조원의 생명이자못위태할즈음에 선부 박긔성 (朴基成)이가용감하게 단신으로전마선(傳馬船)을 잡아타고 목선으로부터 숙마줄을 나리어그부근 바위에다 잡아매고 칠팔명의선원들을 구제하야 전긔선재리에서 치류하다가 그이튼날 인천 긔선(仁川汽船)회사 소유길전환(吉展丸)의 보호를 바더 무사히 인천에돌아왓다 하며지난 이십이일오후 네시경에는부천군 영종면중산리 (富川郡永宗面中山里)압바다에서 조선식범선한척이 엽송권못을 실고인천으로향하야 오다가 또한불의의 폭풍우를만나 선체가 산산이깨여지고 승조원은다행히 살아나와서 전긔중산리 채일봉(蔡日奉)의보호를밧고잇는 중이라는데 그배의승조원은충남 서산군성연면명천리조양숙 (瑞山郡聖淵面鳴川里趙陽淑)의 한명이라하며 손해는엽송권못 시가사십원어치와 선체의 파손칠십원합계일백십원이라한다

東海中部線一部
鐵橋流失로不通
光明慶州間의鐵橋또流失
一兩日中復舊는無望

【大邱支局特電】 대구지방은 이십사일 오후한시부터 호우가 나리기시작하야 이십륙일 오후 다섯시까지에 일백륙십 미리가왓는데 이때문에 동해중부선(東海中部線)중대구로부터이십칠키로팔(二七・八粁)지점인세천(細川)하양(河陽)간이침수되여 긔차가불통되고 또대구로부터륙십이키로지점인광명(光明)간철교가 류실되야 역시긔차가 불통된바 금명간으로 복구될가망이업스며 대구시외 동촌유원지(東村遊園地)도전부침수하야 요전에 복구공사를 해논곳이다 시레결되엿스며대구신천(新川)은지금각각으로 증수하야 수위(水位)륙척이상에달한다고한다

豪雨被害狀況
正午警務局入電

豪雨被害狀況에對하야二十七日正午警務局에達한情報에依하면

全南潭陽에서는 行方不明七名 負傷一名 家屋流失三十九戶 半潰七十六戶 浸水七百二十四戶

光州郡에서는 極樂江과 榮山江上流가 氾濫하야 西部落의被害가 가장激甚한데行方不明七名 家屋半潰六戶同流失二十七戶 浸水二百六十六戶

羅州郡에서는 榮山江의 增水四米四二 家屋流失一戶浸水三十四戶

長城郡에서는 浸水 五十五戶 其他郡部에도 多數의被害가잇는모양이다 【二十六日 午後十時四十分發電】

全北에서는 慶全北部線 五潮金州驛開浸水하야 午前六時頃不通되든바 十時에開通

任實郡에서는 午前六時增水二米 浸水三百戶 流失三戶 死者一名

淳昌郡에서는 午前六時增水六米、邑內死者三名、負傷二名、全壞家屋五十戶、半潰家屋十戶、流失家屋五戶、浸水家屋六百戶、內床上浸水四百戶、罹災民二百名은郡廳普通學校에收容하고 留置人은道武德에避難시키고 銃器彈藥類는普通學校에收容하엿는데 午前八時頃부터 減水하엿슴으로 避難民은 歸宅、留置人은다시留置場에收容하엿다

井邑에서는 倒壞家屋에압녀죽은者二名、負傷者一名을내엿다 (二十六日午後四時三十分着電)

慶南에서는死者三名 家屋의流失及浸水十三戶 道路의欠壞九個所 其他取調中 (二十六日午後七時着報)

慶北에서는金泉郡에서 새로發見한死傷者一名 累計死者五名 負傷者一名 東非小部線은 二十七日午前七時부터運行不能인데即時復舊할可望이업다

金泉郡智禮面에서는 住往十本組倒 其他被害가多數할모양이나 交通通信이不能하기때문에詳細不明 (二十六日午後二時半着電)

嶺南水害地帶에 仁丹三萬包寄贈

대판삼하(大阪森下)인단본포에서는 금번녕남수해지에 악역이 유행함에당하야 인단삼만포를 해지에기증하엿다한다

市內授恩洞에서
紳士麻雀黨被檢
종로서에서 방금취조중

시내 수은동(授恩洞) 삼십이번지 주류양조업자(酒類釀造業者)조승희(趙承禧)외 다섯명은 이래 이십여일간 조승희의집 이층에서 십여명이 밤낫으로 교대하야가면서 마작도박을 하엿다는 혐의로 종로서원에게 검거되엇다 검거된사람가운데는 무직자도잇스나 대부분은 상당한직업과 재산을가진사람들로서 그소행이가증하다고하야 동서에서는 일층엄중처벌하리라고한다

反滿軍各處蜂起
討伐隊와銃火相交
朝鮮人도人夫人質로多數拉去

【電通間島二十六日發】 지난 이십오일오후 열시 이십분경에 연길현소영자(延吉縣小營子)부근삼도하자(三道河子)에반만군(反滿軍)일대가출현하야동지에서 북쪽으로 약이백『메돌』지점에잇는 철도공사에 종사하는인부들의 숙소를습격하야 조선인인부십이명을 붓잡아 가다가그중에서칠명은××하엿다고한다

◇

【電通間島廿六日發】 간도경비대(間島警備隊)는 이도구(二道溝)벽지에 웅거하고잇든반만군(反滿軍)을 토벌하기 위하야 지난 이십일일에 총동원하야동지에서 서북오리지점인 천수동(泉水洞) 부근을 근거지로하고 맹렬한 토벌을개시하엿는바 반만군측에서는사체수개를내여버리고도주하엿다고한다

◇

【電通東京二十六日發】 적봉서남방 (赤峯西南方)약 십칠리『카라친』(喀喇沁)왕부삼합(王府三合)에는 대포를가진약삼천명가량의 반만군(反滿軍)일단이집결하야 적봉을 공격할목적으로신개(新開)방면으로진출하고잇섯는데 수일전부터 그곳에잇든 몽고군(蒙古軍)과 충돌하야방금 격전중에 잇다고한다

生氣嶺勞組豫審
廿六名有罪決定
廿九名中一名死、二名免訴

共産黨再建協議事件

【淸津】 작년오월에 경성고보(鏡城高普)학생을 중심으로한『메-데』는세라』사건으로발단되여라남서(羅南署)에검거된생기령적색노조급(生氣嶺赤色勞組及)朝共再建協議事件)장도명(張道明)외이십구명은 이래청진지방법원 대야예심판사(淸津地方法院大野豫審判事)의 담임으로 취조를진행하여 오던바 지난 이십사일에 아래와가티이십구명중 이명은 면소되고일명사망 이십륙명은 공판에회부키로 결정되엿다고한다

▲張道明(三四)▲尹柄權(二七)▲金永俊(二六)▲朴應甲(二三)▲金澤龍(二三)▲許錫秀(二二)▲金會男(二二)▲張奇彥(二三)▲張壽松(二二)▲姜二孫(二四)▲金元甲(二七)▲洪鐵成(二七)▲朴東協(二三)▲成亨洙(一八)▲崔增淵(二二)▲李東明(三〇)▲金暢浚(一九)▲元周三(二九)▲金承俊(二六)▲安東暉(三三)▲朴鳳憲(二四)▲文基煥(二二)▲李儀鳳(二六)▲崔元鉉(二六)▲崔丁鶴(二七)▲安松鶴(二三)以上二十六名起訴 黃吉甫(三二)薛麟孫(三〇)以上二名免訴 金炳五(二二)死亡

德川爆彈事件
邊洛奎十年求刑
言渡는來八月二日

【新義州】 덕천(德川)폭탄사건의동범변락규(邊洛奎)등오인에대한 제이회공판은 예정한바와가티 이십칠일오전아홉시에신의주지방법원에서 국지(菊池)부장심리로 개정되여박봉수(朴鳳秀)김윤근(金允根)양병려(楊炳呂)삼인의심문을마친후곡전(谷田)검사로부터 다음과가튼 구형이잇슨후 폐정하엿는데 판결언도는 래팔월이일이라한다

邊洛奎十年 金贊成七年 朴鳳秀五年 金允根 楊炳呂各二年六個月

殺妻嫌疑의
渡邊은無罪로
今日高等法院에서言渡
正犯은누굴가?

자긔의 사랑하는 안해를죽엿다는 혐의로 살인죄로긔소되어평양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밧고 검사의공소로 다시평양복심법원에서 상해치사죄(傷害致死罪)로징역륙년의 판결을바닷다가 피고가불복상고하야 고등법원에서 옥명(玉名)검사는 역시 상해치사죄로 징역륙년을구형하얏든 원,진남포검사국서긔도변광길(渡邊廣吉)(三九)에대한 살인피고사건은 이십칠일에 고등법원에서 증영(增永)재판장으로부터 복심판결을 파기(破棄)하고 증거가불충분하다는리유로 무죄의판결을하얏다 그리하야 만이년동안철창에서 구금되어잇든 도변은즉일로 석방되야 자유의몸이되엇다 이와가티혐의자 도변이 무죄로판결되엿슴에따라 도변의안해 초자(初子)를 죽인범인은이로부터다시 차저내어야되게되엿다

斬頭事件犯人
求刑대로四年言渡
從犯은三年半判決

어린아이 머리베어버린 사건의범인배구석(裵九錫)、윤명구(尹明九) 두명은이십칠일경성지방법원에서 북조(北條) 판사로부터 지난번검사의 구형대로 배는 증역사년 윤은 증역삼년륙개월로 판결하야다

「情報者」押收

시내익선동(益善洞)삼십삼번지 사회실정조사소(社會實情調査所)에서발행하는 정보자(情報者) 팔월호원고가 전부압수처분을 당하얏슴으로 구월호를 준비중이라고한다

五、一五事件의
海軍公判第三日

【電通橫須賀二十七日發】 해군측오일오사건(五、一五事件) 제삼회공판은 이십칠일 오전아홉시부터 개정되여 계속하야 고하중위(古賀中尉)의 심문을 행하엿다

陸軍公判第二回

【聯合東京二十七日發】 오일오(五、一五)사건 륙군측공판제이일은이십칠일오전열시오십칠분에 개정되여피고 조원시지조(篠原市之助)를 비롯하야 순차로 신문이 잇섯다

天氣豫報
曇一時晴

高氣壓은 小笠原附近의海上에퍼지고잇고 滿洲及中國內陸의氣壓은낫다 朝鮮海峽에는小低氣壓이잇다 昨日東岸과南鮮의諸所에는三〇『미리』內外의降雨가잇섯다 今朝는北鮮岸은日氣가조코其外는大槪가흐리여木浦에는비가오고잇다 明日은大槪흐릴터이다

昨日最高 三二度六 同最低 二一度四 今日正午 [illegible]

咸北再建共産黨
豫審決定書全文(一)

本籍 咸鏡南道元山府中里二洞
住所 同上 明洞 番地不詳
無職 道明 朱東化 도라구 도로즈 高吉龍 朴雁甫事 張斗明 當三十年

本籍 咸鏡北道鏡城郡梧村面齋星洞一〇一
住所 同上 勝岩洞七七番地
米穀商 尹珍洙 李成一 李一男 尹逸洙 金哲 北島文雄事 尹柄權 當二十七年

本籍 咸鏡北道會寧郡會寧邑三洞一一〇番地
住所 淸津府新岩洞七二番地祖乾重方
勞働 三松、三猿、長孫 波韓、一雨事 金永俊 當二十六年

本籍 咸鏡南道永興郡億岐面九潤里四五七番地
住所 咸鏡北道會寧郡會寧邑二洞三四一番地
中央日報記者 哲煥事 朴應甲 當二十四年

本籍 咸鏡北道會寧郡會寧邑贅山洞一一九番地
住所 同上九八番地
勞働 金澤龍 當二十三年

本籍並住所 咸鏡北道吉州郡東海面不老洞四七二番地
無職 正學事 許錫秀 當二十一年

本籍並住所 咸鏡北道鏡城郡梧村面勝岩洞
煙草營業所煙草配給員 黃吉甫 當二十二年

本籍並住所 咸鏡北道鏡城郡梧村面勝岩洞八七番地
無職 英世 彰世事 金會男 當二十三年

本籍並住所 咸鏡北道鏡城郡梧村面南夕洞六〇番地
農業 今突 奇突事 張奇彥 當二十二年

本籍 咸鏡北道鏡城郡梧村面南夕洞二三九番地
住所 同上七〇番地
農業 張壽松

本籍 咸鏡南道咸州郡上岐川面五老里四〇〇番地
住所 咸鏡北道鏡城郡朱乙溫面直洞番地不詳
生氣嶺炭礦夫 金泰根 姜亨彥 姜二孫 當二十一年

本籍 咸鏡南道端川郡何多面蓮吾里七三七番地 當二十四年
住所 咸鏡北道鏡城郡朱乙溫面直洞崔壽鳳方
炭礦夫 寅楨、仁孫事、薛麟孫 當二十年

本籍 咸鏡北道富寧郡靑岩面水南洞一三二番地
住所 淸津府新岩洞九九番地の一六
私立淸德學校敎員 金元甲 當二十七年

本籍 咸鏡北道鏡城郡龍城面南夕洞三三七番地
住所 同上梧村面勝岩洞金昌學方
無職 淳巖事 洪鐵成 當二十七年

本籍並住所 咸鏡北道鏡城郡梧村面壽星洞六六番地
農業 朴東協 當二十四年

本籍 咸鏡北道鏡城郡梧村面壽星洞一五番地ノ一
住所 同上一一一番地
高等普通學校生徒 成亨洙 當十八年

本籍 咸鏡北道慶興郡慶興面慶興洞一三八番地
住所 同道鏡城郡梧村面勝岩洞二〇二番地
高等普通學校生徒 寅致事 金柄五 死亡

本籍 咸鏡北道明川郡下古面上垣洞一八四番地
住所 同道鏡城郡龍城面北洞崔順源方
高等普通學校生徒 崔增淵 當(二十一年)

本籍 咸鏡北道慶興郡雄基邑雄基洞一九番地五
住所 同道鏡城郡梧村面勝岩洞七九番地
高等普通學校生徒 李東明 當(二十年)

本籍 咸北道明川郡上雲南面內浦洞一九九番地
住所 同道鏡城郡梧村面城北洞李鳳洙方
高等普通學校生徒 金暢浚 當十九歲

本籍並住所 咸鏡北道鏡城郡朱乙溫面次鄕洞三三九番地
無職 奎三事 元周三 當二十九年

本籍並住所 咸鏡北道鏡城郡朱乙溫面溫川洞五五番地
雜貨商 金承俊 當二十三年

本籍 咸鏡北道慶興郡雄基邑雄基洞四七番地의三
住所 同道會寧郡雲頭面遊仙洞宋仁俊方
電工 三醒事 安東暉 當二十三年

本籍並住所 咸鏡北道慶興郡雄基邑雄基洞一三六番地
書籍小賣商 朴鳳憲 當二十四年

本籍 咸鏡北道慶興郡雄基邑白鶴洞四三番地
住所 同上 雄基洞三一六番地
洗濯業 文基煥 當二十一年

本籍並住所 咸鏡北道穩城郡永瓦面上和洞六二番地
中央日報記者 容熙事 李儀鳳 當二十六年

本籍並住所 咸鏡北道穩城郡永忠面懷德洞四四七番地
農業 大成事 崔元鉉 當二十六年

本籍並住所 咸鏡北道穩城郡永瓦面上和洞六七一番地
中央日報記者 英雨事 崔丁鶴 當二十七年

本籍 咸鏡北道鏡城郡梧村面勝岩洞一二五番地
住所 京城府壽松洞六六番地金性女方
라디오技術員 安松鶴 當二十三年

右被告張斗明에對한 昭和八年豫審第二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事件被告人尹柄權에對한 昭和七年豫第一四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事件豫審係의 被告等에對한昭和七年豫第一一號 治安維持法違反 被告事件에對하야 併合豫審을 遂決定하는바左와如함

◇主 文

被告人張斗明 金永俊 朴應甲 金澤龍、許錫秀、金會男、張奇彥 張壽松、洪鐵成、朴東協、成亨洙 元周三、金承俊、安東暉、朴鳳憲 文基煥、李儀鳳、崔元鉉、崔丁鶴 安松鶴 尹柄權에對한本件公訴事實及被告人姜二孫、金元甲、崔增淵、李東明、金暢浚에對한 本件公訴事實中理由摘示의 部分은 淸津地方法院公判에付함

本件公訴事實中被告人黃吉甫 薛麟孫에關한部分被告人姜二孫이昭和七年四月二十日頃鏡城郡朱乙溫面直洞生氣嶺炭礦附近甚地에서 朝鮮을帝國의××으로부터××식히고 朝鮮에서××財産制度를否認하고 ××主義社會를 建設하는事를目的하고 生氣嶺赤色勞働組合을 組織할協議를한部分 被告人金元甲이 昭和六年十月初頃淸津府新岩洞九十九番地同被告人居宅에서尹柄權、徐承元等에게對하야 同人等을 右同様의目的으로咸鏡北道各地에 秘密結社를組織케할것을目的하고 其資金으로 同年十二月末까지、數回에亘하야 合計金九十圓을尹柄權에게 供與한部分 被告人崔增淵이左鸞鳳과 共히 昭和七年一月十六日頃鏡城郡梧村面城北洞被告人自宅에서 右同様의目的으로 讀書會를組織하고被告人李東明、金暢浚이 同月二十六日頃被告人崔增淵方에서 同人의勸誘에依하야 讀書會가右와如한目的을有한事를知하고 此에加入한 部分은 다此를免訴함

被告人金柄五에對한本件公訴는 此를棄却함

第一回 男女水泳講習會

◇申請 七月二十八日限
◇場所 朝鮮日報特設水泳場 (漢江人道橋東便)
◇期間 自七月二十八日十日間
◇時間 午後一時부터五時外지
◇參加 人員八十名、參加金五十錢
朝鮮日報社庶務部와鍾路和信商會東西館入口案內係로申請

◇講師 協成實業敎員 文風蕭 水泳大家 金長海 本社 尹鴻求
但女子는 特別班을 設하야 女監督의 指揮가有함
◇課目 平體、側體、立體、游泳路法、飛入潜水法、遠泳法、救急法、(講習中隨時進行함)

主催 朝鮮日報社

求職者의福音
左記種類에對한原料都賣又난製造法責任的傳授하오니 有意諸氏난試錢切手同送하시면規定書無料送呈
◎化粧品◎香料調合◎染料◎正油◎醋◎ソース◎洗濯石鹼◎醬油 實習有意諸氏외市內에는直接來議하십시오
京城府北洞貳番地 原料直輸入商 大洋堂藥局

淋疾
患者에告함. 大阪チエ는廿年間淋疾에關하야研究하야왓습니다. 故로チエ에는他處에업는チエ獨特한藥品과治療法이잇는바 決코他의模倣과追從을不許합니다 淋疾은必히根治되는病이오며 오래苦生하는原因은藥品과療法을그릇한所以이오니 一次來臨하사서 說明을드르시고急히根治케하시옵 病者를爲하야特價奉仕합니다 (出ヶ文獻進呈)
京城郵便局北側 チエ京城支店

淋病專門
診察・午前九時로午後九時까지 尿・血液檢査施行 (電本二三五三)
京城郵便局北側(レート塔後) チエ京城醫院

資本金壹千萬圓
各種信託 低利擔保貸付
朝鮮信託 京城 朝鮮
(營業案內贈星)

皮膚科花柳病科
醫學博士 吳元錫 産婆 金奉希
京城安國洞네거리 電車停留場前 電話光二一三一

職業
遠近男女自宅에서되는永久有利한特許應用의見本進呈
大阪天王寺區寶ヶ芝町 稻榮社

入札廣告
一入札 七月卅日外지
一開札 七月卅一日午後三時
一開札場所 沙里院沙里昌農園
一果樹本數 約千本
一貼數約 沙里院西里一五五
林檎都賣 昌農園 主 崔昌灝
但果實에限함

第一劇場
七月廿八日낫부터 時間 낫一時 밤八時十五分 始映 入場料 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大每劇 메트로社特作品 장부링의스카-트 全七卷
夏節에한번시원스러히웃는것도 마음을도울수잇습니다 마음것우서보시라
와-나社特作品 大活劇 白牙의피무더 全七卷 名犬린틔린主演
용감스러히活躍하는名犬이야말로人間以上에무슨힘이잇습니다 하다참두패권映畵올시다
幕間 本館獨特한音樂 스도로핸드五人조아 (여러분의) 梨園界의名花 尹白丹鄕 出演

中央館
廿五日封切 凉風颯爽たる盛夏映畫界に放つ超爆笑篇悲戀篇特別公開 特別大衆料金 階下席拾錢均一
新興キネマ初夏超特作時代ナンセンス
雜誌『オール讀物號』所載 原作 湊邦三 監督 村田正雄 『求緣戰法』改題 出世二人侍 全拾二卷
これは丁髷から覗つた求緣戰法です 謙遜ばかりしてるるので折角の抱へ口を逸する事度の二人の浪士がこれは赤なんと三百石三變を一時に得るまでのユーモアミスペーソス横溢の凡を現代意識變かな超喜劇です。爆笑、哄笑、珍無類、ロイドやチャップリン以上のお笑ひ映畫
新興キネマ初夏特別現代劇 原作 小島武郎 監督 高見貞衛 主演 淺田健二 水原玲子 助演 若葉馨 久米順子 モデルの女 全拾卷
日活 島津保次郎 ルチアノ・アルベルチニ氏主演 大活劇 冒險王 全六卷

優美館
七月二十八日(金)曜日브터納凉大公開?
米國래이아드會社超特作大雄篇 監督 듀-그온氏 絕海의暴君 全七卷 자크린로-칸 上山草人氏主演
米國래이아-드會社特作 怪魔橫行 全六卷 監督 헨리-오드氏 主演 윌니암랄-셀氏 로이스래이孃
米國래크드社特作? 青春の輝き 全五卷 監督 찰스기부런氏 主演 桃色의美姬 콘스탄스달마지
凉味 納凉 少女軍舞踏 오게、트라伴奏! 開幕!
優美館 電光三九五番

外國音樂의 消化와 朝鮮音樂의 創造

朝鮮樂壇에 寄함

金管

× 現在 우리樂壇은 西洋音樂이 移植된지 半世紀가 된다하드래도 여러것充分히 咀嚼消化치못하고잇다 말하자면 未完成인狀態를繼續하고잇다 엇재未完成이라하게되는냐? 하면音樂領域에參加하는者 文學等에比하야 非常히少數임에잇다 여기에도 두가지 原因이잇으니 한나는 音樂은音을 表現하는手段으로하기때문이다 音이란表現手段은 一般이疏遠하게 生覺할뿐더러 文學이나繪畫藝術에 比較하여서 近接하기가어려웁다고 生覺하기때문이다 더욱音樂이再現藝術임에잇서서 造型藝術에比해서流布性에 狹少함도잇다만은 基本的意味에잇서서 音을手段으로하게 됨으로 創作入門前에 音의配列 組合等에關한基礎的訓練이 必要하기때문에 音의基礎工事와 實技를배우게되는重複되는 困難이잇는것이기때문이고또하나는 養成機關이 水準下에잇기때문으로도

樂人 들이貧弱한技能으로惰眠安處하기때문이다 그리하야 音樂藝術이窮乏한데處하여서 進展될줄을모르고 所謂既成樂人이 音樂에對한 理解程度의低調에도 起因되는것이다 音樂이무엇인지도 理解못하는音樂家 演奏家技術이不足한演奏家 音에無意味한 無秩序한羅列를 作曲이라고生覺하는作曲家等等이公然하게樂壇人으로서通用됨으로 一般聽衆이그價値判斷을 分別할때까지 音樂的智識能力이 供給되기까지는未完成인樂壇일것이다

이러한 無氣力한樂壇에잇서서 指導理論이나 批評이수혀存在치를못하고잇느니만큼 未完成이니 無爲의連續이니 弄하여도 過言이아닐뿐더러 寒心할배이다 批判에잇서서基礎的檢討도잇서보지를 못하엿고 더구나 社會科學的研究에잇서서는 絕無이엇섯다고生覺한다 (過去一九三一年度까지에 申鼓頌,洪蘭坡,金管等의 理論批判이잇엇다하드래도 枚擧할餘地가업다)音樂專門機關(學校,研究團體雜誌)이변변한것하나도 갓지못한發芽前의 養分期에處하엿다면

朝鮮 樂壇스스로의自慰는 될지모르나 音樂思潮上으로본다드래도 五十年이나뒤떠러진執拗를밟고잇다 그러면 압흐로 第一먼저할일은 무엇이냐하면 西洋音樂을完全히消化식혀야할努力이다 그다음 그消化된것을 基礎로하여서 새로운朝鮮音樂을 創造하여야될것이다 西洋音樂을 完全히消化할려면 現在와가튼 狀態로는不可能하다 樂人은各自專門을넓히 또는 깁히研究하고 技術進步를 計劃하고 그公開發表함으로서 向上發展하게함은勿論이어니와이때에聽衆의音樂的進步를目的으로된고 自身判斷에依하여서 樂人을鞭撻하여나가야만 다決算한 主義를떠나서 自他의樂人의演奏를듯고그것으로 參考하여야될것이다 그러러면 첫재우리는 한개나마音樂學校創設를 提唱하는것이다 [illegible]樂壇人의關心하고잇음을짓는바며 社會的으로對持되기를企待한다 등재로專門雜誌를 몃개가지야만할것이다 現狀과갓흔

新聞 雜誌를 借用한다는것은 理論 研究等의發表機會를失케하는것이니이에朝鮮音樂家協會의無氣力한存在를痛歎케되며 좀더時代的性格을資責하고多少라도 歷史的感覺(同時에社會的感覺을包攝한다)에銳敏하게해닷고 登山하여야될것을말하여둔다 이제까지活動範圍를말하여본다면 會員들의獨斷觀의根底에잇서서 浮游的이고漠然한 또는注意識的인固定的인槪念以外에 가진것이업슴을말합니다 根源的인規定은普樂조등의『에스프리』가아니면안된다

辰窓 平和主義의 反平和性

韓文

倫敦에열린 世界經濟會議는 開會以來 暗雲低徊中에서 三週餘인지난六日로假死狀態에빠커 오는二十七日로 休會될모양이다 十六個國幹部會存續說 三個月後再開說等 餘蠶을傳하고잇스나 거긔에는아마아모期待할生脈이업다

◇……◇

米國은 爲替安定共同宣言案을 斷然拒絕하는同時에 經濟會議를 犧牲하더래도 自國繁榮의 大計를樹立하랴고 불러가서 임이 英國에代하야自國의實力을 심어논 南米諸國과 通商交涉을 開始하고 金本位制最後의 牙城인佛國은 金本位固守를부르지즈며 金本位離脫國이共同하야 總攻擊을開始하는때라도持久戰으로 이에應酬한다는決心下에 和蘭 瑞西等金本位國과共同戰線을準備하기爲하야 巴里에서金本位『블럭』諸國中央銀行代表者들과會商한다고傳하고 過去에잇서서 東洋式『壽富貴多男子』의大宗이든英國은 植民地 自治領等嫡庶一門을단속하는一方 英帝國經濟會議를召集하랴하고 愛妾에갓투버서지는줄을모르는다는格으로 배눗게나마 一夫多妻主義에맛들린××은 新接××와의經濟『블럭』을形成하기에홀몬作用을盛히하고잇다

◇……◇

元來經濟會議는 世界恐慌을克服하는同時에 世界의平和를齎來하자는것이그金看板이엿스나事實上그것은보다무서운難局을豫示하는惡夢에지나지안는다 막다른골목에헤매는者들이 커각금 케命脈을扶持하랴고 모아본것이나 모히고보니亦是極度로주린者가 人肉이라도먹고십흔듯이 서루뜨더먹을생각만낫슬것이니 원악自國內弱者를뜨더먹는데이서서 非常히손이난그들이니만큼 어지간히食慾이動하엿슬것이다

◇……◇

이런犬猿의會合이란 決裂外에他道가업는것이지만 問題는차라리 會議의다음에올者는무엇인가하는데에잇다 한말로덥자면 經濟戰으로부터武器戰에의飛躍이라는길이 오직『會議』이아닐가? 勿論이런飛躍의可能性은 발서부터잇서온바이지만 汪餘曲折이만은『데리게-트』한 國際關係로各各『會議』라는浪漫詩를부르며假裝舞蹈도해보든것이다

◇……◇

그러나 會議가 形式上으로나마 캐웃나기前브터 有象無象의大小諸國은 커마다毒牙를갈기始作하엿스니 國家經濟니『블럭』經濟니 關稅戰이니 軍備擴張이니하는부르지짐이 말하자면 經濟戰으로부터武器戰으로나아가는途程의 里程標임에지나지안는것이다

◇……◇

世界의 平和를부르짓는이者들과 이者들의會合에서 그들의부르지짐과는 正反對인反平和性을넉넉히읽을수잇지안흔가?

漢詩欄

春汀選

第一回決選結果

【題】喜雨 【韻】「押東」

選外佳作

龍川 金麟西

旱餘甘霖自西東
慰我三農四野同
淨洗塵埃山色好
分流溝澮水聲通
一犂夫足知時雨
萬姓解顏樂歲豐
爲問陰晴是誰力
世人不敢爲天公

時調欄

春汀選

【題】喜雨

佳作

申不出

喜雨 題를노코 時調쓰란 야속하오
喜雨가 喜雨라도 喜雨될리 업스련든
喜雨가 惡水된時節에 喜雨라니 왼말요

又

논밧헤 오는비만 喜雨라고 못할느니
세상이 말더거늘 人心아니 마를손가
말느고 마른天下에 喜雨나려 주소서

又

한숨짓고 오른구름 눈물바 풀어내려
죄얼만흔 이세상을 골고로 적실적에
비에다 뜻을부처 다도눈물 나노라

×……

李性寧

뜻밧게 듯는소리 그分明 喜雨련만
그래도 행여라고 門열고 더처보니
끌구엔 개고리한마리 헤엄치고 잇더라

笑話 【投稿歡迎】

◇……實踐的經驗

A 요새女性들은 모다 獨身主義가 流行인가부데……

B 글세……

A 글세라니 나는實踐的經驗으로써 그런結論을말하네 내가 지금까지 結婚을申込한 만흔女子中에서 아즉한사람도 承諾한女子는업스니까!

◇……그心情

妻 여보내가조희를찻는틈에 애기가 그만잉크『한병』을죄다 드려마셧구려

夫 그게 무슨걱정이오? 鉛筆이잇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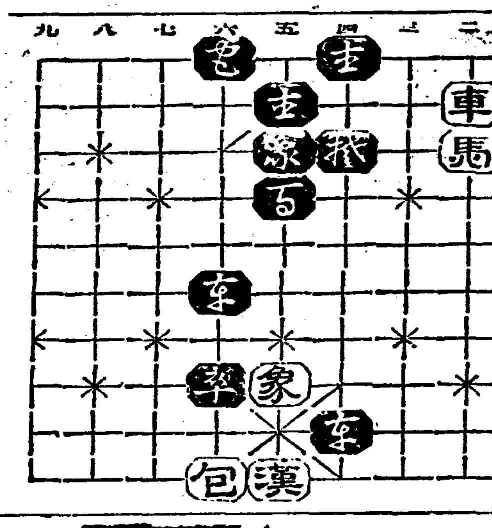
博譜

【問題 三】

漢이 어떠케하면 楚를이기겟습닛가? 풀어보십시오

解答은明日紙上에하겟습니다

恭博係



林巨正傳 (149)

洪碧初 作 具本雄 畵

길막봉이 [二]의二十

막봉이가 안마루에 서칭 뛰어올라섯며 박선달이 안방 머리맛상창을 열고 내다보며

『웬놈이 내집을침입하느냐』

하고 호령하엿다 막봉이가 팔을 거더부치며 쌍창압흐로 대어드니 박선달이 얼변 웃간으로 피하야가며

『얼른 하인들을 불러서 커놈을 잡아내라』

하고 고성을 질럿다 막봉이가 신발신은채 방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웃간문열고도망하라는 박선달을 쪼차가서 뒷곡지를 웅켜잡앗다

『냥반좀 잘구경합시다』

하고 막봉이가 박선달을 떠밀고 방에서 마루로 나오고 마루에서 마당으로 나려왓다 박선달의 큰아들은 사랑에서 들어오다가 돌우나가고 둘재아들은 절구공이를들고 막봉이게 덤비다가 발길에차이어 마당한구석에 나가 잣바지고 셋재아들은 부리는 기집아이들과가치 작은방이에숨어서서 밝가만 엿고잇고 박선달의 마누라와며느리는

『아이구 이런변이 어디잇나』

『아이구 커놈을 엇더케하나』

실성한사람 군소리하듯이 지거리며 마룻구석에 뭉치어섯다 막봉이가 다시 박선달을 떠밀고 사랑으로 나가라고할즈음에 박선달의 큰아들이 집안사람과 동네사람들을 몰아가지고 들어오는데 으중이 뜨중이 수효는 십여명이 넘엇다 막봉이가 이것을보고 박선달의뒷곡지를 잡은채 여러사람을 향하고서서

『너의눈들이 내게 덤비는날이면 박선달부터 태가치구 너의눈들두 하나 성하게두지 안을테다』

하고 박선달을 곳 태기칠것가티 둘러메라고하니 박선달은 죽어가는소리를하고 여러사람은 선뜻 대어들지못하얏다 권에 마부로 송도갓든사람이 여럿중에 석겨잇다가 막봉이를 알어보고

『아이구머니 큰일낫네 커냥반이 혜음경서 도독놈 혼내든 장사 아니라구 여보게 우리떠위는 백명 이백명 한에펜법두 소용업네』

하고 호통갑을 떨어서 여러사람들은 구경하던것가티 서서보기만하는데 박선달의큰아들이 어느틈에 독긔하나를 차지들고 슬그머니 막봉이뒤로 돌아왓다 귀련이아버지는 처음부터 막봉이를 쪼차들어오라고하얏스나 귀련이가 은근히뻑부의욕보는양을 보고시픈맘이잇서서 커의아버지에게 울고매달렷다 사랑에서 안으로들어오는 쫄문안에 귀련이가 아버지의손을 붓들고서서 드려다보는중에 사촌의독긔가 남편뒤에 갓가이가는것을 보고

『아이구머니』

하고 소리를질럿다 막봉이가 고개를돌리켜 독긔를보고 박선달을 돌려세우며 곳아프로 떠다박질르니 아비가 어퍼지며 아들이 잣바지는데독긔는 여프로 떨어젓다 막봉이가 박선달과 큰아들을 잡아닐으키고 또 마당구석에서 떨떨매는 둘재아들까지 끌어다가 삼부자를 느런히안친뒤에 한번 휘 돌라보다가 중문간에잇는 큰절구통을 한달음에가서 들고나왓다 막봉이가 박선달삼부자아페와서 절구통을 번쩍 치어들며 귀련이아버지가 딸의손을 뿌리치고 쪼차나왓다

『이사람 무슨짓을하려구 이러나』

『삼부자를 박살내랴구요』

『이사람이 미첫나』

『왜 미처요 상놈의목숨하나를 냥반의목숨셋과 밧굴랍니다』

『이사람 제발좀 고만두게』

막봉이도 박선달을 혼뜨검내랴고 서둘럿슬뿐이라 장인의말에 못이기는체하고

『고만두자시면 고만 두어두조치요 그러치만 박선달이 그런버릇을 다시안현다구맹세하는말은 들어야겟스니그리아시요』

하고 힘자랑삼아 절구통을 공중에 칫드리고 다시바더서 땅에노코 박선달을 나려다보며

『롱생이 상놈사위 어덧다구 호덩질하든 냥반님네가 여간해서는 잘못할줄을 몰을테니까 초죽엄은 해놔야겟지』

하고 팔죽지를잡아 닐으켯다

『아이구 팔뚝어진다 다시안할테니 팔놔라』

『너무 쌍삭한데』

『아이구 팔이야』

『다시그런버릇 안할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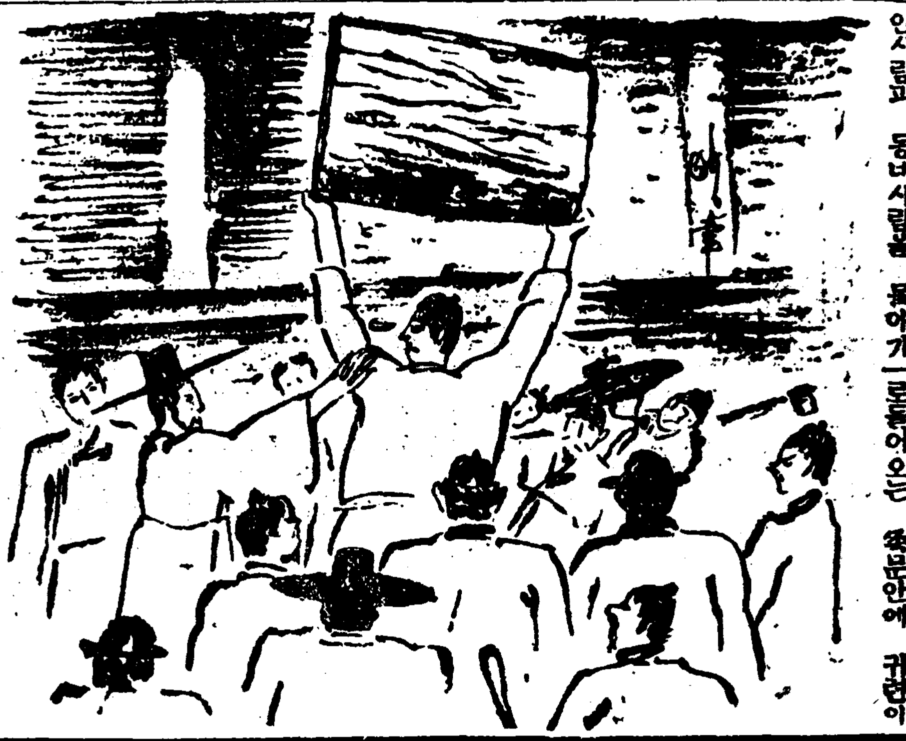
『안하마 안하마』

『엇재 냥반의 독하지못해』

막봉이가 박선달의팔을 노흐며 웃섯다 귀련이아버지가 딸내외를데리고나갈때 등뒤에서박선달이

『인제는 형례아주의절이다』

하고 소리치는것을 들엇다



멍텅구리

金仁奎 畵

第1篇 記者生活

—40—

創作 窒素肥料工場 (1)

李北鳴

『아직이십분이나! 캬ー가시간도안간다』

문호는 소금가티피곤한육신을 기지게쓰면서 중얼거린다 아츰일곱시부터 오후다섯시까지 조곰도쉴새업시 급속도로회전하는 원심분리기(遠心分離機)에서 흘러내리는 하얀사탕가루가튼 류안(硫安)을목류형에받아『채인엔드뱃쓰』에 운반하는일은 쉬운일이아니다 이층테긴(甲板)에서 각금 낙수물가티 떠러지는류안은문호(문호뿐아니다)의작업복을버리집가티 구멍을내어준다 그리고류안결정(結晶)이 마치얼음이얼어부튼듯이부터서 걸을때마다 와사삭 사사삭쓰라인다젓개신발(쥐셔다비)을 며칠안신어서 석기우는부분마다칼로어인듯이 쫙쫙찌어진다 그러나 류산과 류안이무든데는 씨츨수가 업다 씨츠면 몬작몬작다녹아 싸지는까닭이다

그러나손이나 얼굴에무든류산은 멧번이고 수도에달려가서씻지안흐면안된다유일한재산인육신을 병구(病軀)로만들수는업스니까

그러나문호는볼썽히 요컨번에 이층을오르다보다가 우호로부터떠러지는류안결정이 눈에들어가서 그때부터눈이허럴하고 잘보이지안엇다

대번에 시력(視力)이십도나 낫바젓다는말과 안경을쓰라는의사의말을듯엇스나 문호는

『될 그까짓테……벌어먹자면 할수업는일이지』

이럿케그는생각하엿슬뿐이다

질소비료공장이 소화×년에 H라는조고만어촌에 터를닥글때부터 문호는직공으로드러가잇섯다 그런관계로 다른직공들보답도삭건이좀만흔편이엇스나 그러나일급 팔십오건이란 돈으로는 다섯식구를살리고나면 그밧게명이라든가 다른비용에도 갈나부칠여유가업섯다 그커한달설흔날은 쉬지안코단너야 겨우다섯식구가 입요긔나한다

고된로동과 약품은다량으로 사용하는 이공장의특수한공긔는 발서문호의가슴속 어느부분을 파먹기시작한지가오래다 그러나 문호는독참고 니를악물고 매월월급을하엿다 약을먹을래야 돈의여유가업는그는 먹을수가업섯다 약을먹을수업는대신에 가슴은컴컴쳘니고 압헛다 힘세고부즈런한문호도드드여 한달이면 닷새는쉬어야하엿나

『이십분이면 아직 멧류렵이냐?』

그는자긔의흐린눈을 부비며 또한번시계를 쳐다보앗다『가기는가는심이냐? 대관절……』

『이사람아 시계가구멍이……쌍구가나겟네』

웃기기를잘하고 농담조하하는용수가 그의억개를탁친다

『참 컹말시간도안가네』

그는 다시 류렴을 밀기시작하엿다

『뛸니가면 뛸니신다지야』

『오래살면 뭘하나?』

『죽으면 또뭘하나? 한때한때는다맛는거야』

『암 살구야볼일이지』

하고류렴을밀고 오든상호가 별안간 가말을면진다『미락는 우리의것이니 씻는

『요건 아직 과렴과렴인데 없에니까 큰소리를 당당치는구나 여녀서대간나이돼봐라』

문호의말을받아차며 용수가 상호에게

『이사람 커렁감안테 연설을 좀해주게 오백년자든잠을쌔게……『만국노동자케군』하고 커 철(동무의일홈)식(式)으로……』

그들은『만국 노동자여……××하자』하는말을 언케나잘하는철호를 호사자를떼여버리고 그커철이라고불럿다

『쉬ー』

하고 문호는 그큰방울휘둘러보앗다 요행감독은보이지 안엇다

『애 미역국먹을소리마라』

『미역국맛다나 참이사람 자비옥가미상……이번은쌍둥이미안해 배가남산이데그려』

『그리기맘야 좀죤등아리들을 가만이가지고잇스란말이다 낙까지 걸리게말고……밧는소는 씩하지안코도 밧는다네……왜 친목회사 건들못보나? 툭하면 동정결음(미역국) 일세』

기실 글자만 드려다보아도 한참무슨생각을하고잇서도(요놈수상하고나) 하고 회사취조실로 불러드리고 한편으로는 집에가서책상을모도 조사하는판이다 일터를찾는노동자가 알감자가티 드려밀리는맛에 이권에이삼권씩올려주든승급도 그만까써먹고 써부려낼생각만하는새기다

『그러기에말일세 써불리지안토록하자말이야 피차에……』

『홍 요컨친목회일만보게 그리고또철호일만보게 꼭꼭밀려밧치는놈이잇는데야 엇지나』

『아니철호가 엇쨋나?』

『철호도 미안미안하데 목아지가……』

『쉬ー 왓다』

하고 문호가말을니으라다가 사년이나공장에서 눈치코치를 치루어난문호는 두사람에게 눈짓을하고 아니먹으최부살가티 류렴을재바르게민다 우술줄볼은 감독이우슬우슬 걸어오고잇다

妊娠醫學

釋迦世尊의下敎인 妊婦의保生訓

—입덧과脚氣, 浮腫을防止하고 튼튼한애기를順産하는法

佛敎에서는, 妊娠으로부터分娩하기까지의, 二百八十日이라는數字는, 心經의文字二百八十字에緣由한것이라하야『懷妊身持鏡及養生』이라하는 佛書에그心得을說하엿읍니다.

그것은初月부터十月까지의胎兒의形을觀音, 文殊, 普賢等諸佛의像에擬하야妊娠의마음가지는法을가르친것인데, 그와가튼敎訓이支那에도잇읍니다

(胎敎) 라하는것이그것이니,『婦人이妊娠하야는寢不側하며, 座不邊하며, 立不蹕하며, 邪味를不食하며, 割不正이어든不食하며, 席不正이어든不坐하며, 눈으론邪色을不視하며, 귀로는淫聲을不聽하며, 밤이면, 瞽者로하야금詩를외고正事를말하게하라, 이리하면生子에形容이端正하고, 才가過人하리라』하는朱子의小學에잇는文句에, 그主旨가가장잘나타낫읍니다.

이것은要컨대, 妊娠中의어머니의精神은, 그대로胎兒에影響反映하는것이므로 훌륭한아이를나라면, 마음을바르게하지안으면 안된다는것을가르친것이어니와, 그보다도더重大한것은食物입니다.

(妊婦) 는十個月未滿의 短期間에自體內에서八百匁內外되는胎兒를만들어노치안으면안되는데, 그것은무엇으로만들어지느냐하면, 더말할것업시 統히妊婦自身이攝取한榮養分으로만들어지는것입니다. 그러므로 妊娠中은마음갓는것보다도더, 特히食物ー榮養에注意하지아니하면, 한편으로는母體自身의健康을損하고, 한편으로는 胎兒의發育을妨害하게됩니다.

例하면칼시움은, 胎兒의骨骼을만드는成分으로多量이消費되는故로母體가이것을含有한食物을充分히攝取하지안으면, 胎兒는살지안하고

(母體) 의齒와骨로부터 더럭더럭칼시움을빼서감니다. 예날부터「一回의妊娠이一枚의齒를奪去한다」하는것은 이때문이니妊娠中齒牙가不實해진사람은, 胎兒에充分히칼시움을주지아니한罰입니다.

또鐵分은胎兒의血液을組成함에必要하고, 母體에서나온뒤의生活의準備를爲해서도, 胎兒의體內에만히貯藏되는것인즉, 特히注意하야攝取하지안으면, 貧血의原因으로難産이되기나오는애기가弱하기도합니다.

그리고또비타민B가不足하면무서운妊娠脚氣와 乳兒脚氣가 發하는것도判明하엿읍니다.

또頑固한惡阻에는인슈린을注射하면著效가잇지마는, 재미잇는것은三大榮養素를爲始하야燐, 鐵, 칼시움, 비타민類, 就中비타민B가第一豐富한給原으로有名한 藥用菌헤ー페에는이인슈린과同樣의物質로, 內服하야注射보다도効果가永續하는글리코키닌이多量으로들어잇습니다.

그러므로妊娠中, 이헤ー페를服用하면, 胎兒의發育에必要한榮養素도充分히補給되고, 무서운惡阻와脚氣도豫防이되는데다가, 또한附屬的한것은, 妊婦를괴롭게구는便秘와浮腫을豫防함에有效한活性

(酵素) 가헤ー페에만히包含된것입니다.

妊婦의便秘는胎兒의壓迫으로因하야腸의蠕動이妨害되므로 생기는것으로, 惡阻를惡化시킬뿐아니라, 浮腫의誘因이되고, 心臟을害하며生命에까지危險잇는子癎을誘致하는境遇도잇거니와, 헤ー페中의酵素는消化를돕고, 衰弱한胃腸細胞에活力을주어, 胃와腸의作用을活潑케하고, 新陳代謝를促進하야自然히大便이順해지며利尿가됩니다.

하고도이것은化學藥劑와달라 連服하여도 絕對로副作用이업는故로單純히便秘를업시하는것만으로도, 妊婦에게는큰福音的藥物이라고할것이겟지오. 이헤ー페로創製한錠劑わかもと가妊婦의保護藥으로, 胎兒와乳兒의發育劑로歡迎바든것도決코偶然은아닙니다.

母乳와 牛乳

牛乳와煉乳로기르는애기는, 비록게다가미음과암죽等을석거서먹여도母乳로기르는애기가티튼튼치가못합니다. 그리고또消化不良이며脚氣가걸립니다.

그理由는牛乳나煉乳미음등은, 母乳가가진完全한榮養價가업다, 卽乳兒의 發育에必要한特殊榮養素가 缺如한때문입니다ー이러한境遇에, 가장進步된方法은『錠劑わかもと』를 부스러트려서牛乳에타먹이는것입니다.

『錠劑わかもと』에는만흔榮養素가잇지마는 그中乳兒의發育素ー비타민類, 리진, 치스진, 消化酵素等은가장豐富함으로이것의添加로因하야, 榮養價, 消化가다조아지고牛乳로라도훌륭히튼튼한發育을볼수잇습니다.

産後衰弱과 母乳不足은 이리하야 恢復됩니다

分娩은가장만흔精力을消費하는勞働이라ー고말한學者가잇거니와따는그럴것습니다, 解産을하면體重은約十分之一이減少합니다. 卽解産前에十五貫이던 婦人일것가트면解産을한後는一貫五百匁을일코, 十三貫五百匁가될것입니다.

그러고解産때문에나오는出血量은, 健康한安産이라야, 一合四五勺이오, 大槪는二合까지가普通입니다. 이일어버린二合의血과一貫五百匁의肉을, 速히도로차커서産後의衰弱을恢復함에는, 平素보다도一層더만히, 榮養을攝取해야할것은더말할것도업습니다

榮養이라한데도

産後는胃腸이 衰弱하엿슴으로, 當分間은野菜며肉스ー프, 粥, 牛乳, 蘸菜等消化가容易한食餌로브터始作하야, 次次榮養이豊富한普通食으로變하는것이妥當합니다.

産後의衰弱이너무甚하거나, 回復이시원치안커나하면乳汁分泌도나쁘고, 따라서애기도弱해커서發育이더딥니다.

이母乳不足에는榮養不良으로오는境遇와, 乳腺의作用이不良한때문인두가지原因을생각할수잇습니다.

그리하야前者인境遇에는, 鰹魚된장국, 잉어미역국等을먹으면, 當場에는乳汁分泌等이만어지는수가잇습니다. 그러나, 榮養이조은乳汁을, 언케고넉넉하게어린애를먹이면서, 한편으로는産婦의衰弱을速히恢復하는데는, 아못조록廣範圍로 食餌를攝取하야, 全身榮養을조케하는것이緊切합니다.

榮養을조케하라면, 귀찬음을무릅쓰고三時食餌를選擇하여만들지아니할지라도, 平素의食餌에다가每日三時『錠劑わかもと』를服用할것가트면廣範圍로食餌를攝取한것과同樣으로, 全身의榮養이非常히조아지고, 衰弱의恢復도速하며, 榮養조은乳汁이豊富히나오게됩니다.

그것은이藥의主成分ー헤ー페가, 榮養素의寶庫라는別名을듯든이만치, 鰹魚肝油, 其他, 牛肉, 鷄卵, 野菜, 海藻等에含有한榮養은勿論, 비타민劑며아미노酸劑等에含有된榮養分을合처논以上으로榮養分이만은때문입니다.

게다가또, 헤ー페에는麻痺狀態가된乳腺의細胞와, 胃腸의細胞에作用하야, 새로히그活動을일쌔어乳汁分泌을促進하며, 食物에서잘榮養分을吸收케하는特身한酵素作用도잇는故로, 一層그効果가顯著한것입니다, 이것을愛用하는産婦는衰弱의快復도速하고

乳汁도豐富하게

나오며, 産後에걸리기쉬운脚氣도모르고지낼수잇습니다. 그結果가애기의發育을조케할것은當然할것이아니겟습니가.

右의『錠劑わかもと』는發見者帝大名譽敎授, 澤村眞博士의篤志에依하야, 二十五日分一圓六十錢, 八十三日分五圓이라는奉仕的廉價로東京市芝公園大門際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頒布합니다. 希望者는右會에서實費만送付하면, 送料는本會에서負擔하고急送합니다. 또全國藥店에도잇습니다.

安産고 惡阻를모르고

(兵庫) 桐野歌代

나는元來健强한便이지만은, 妊娠을하면惡阻가甚하야, 八個月間쯤은病人以上으로고생을합니다.

最初도, 이때문에不得己流産하게되고그後男子둘을나엇든데, 그때도퍽으나고생을햇습니다. 세번째長女가腹中에잇슬적에는 또惡阻가甚하야 (中略)아모리해도낫지안습니다. 食物이란도모지목을넘지못함으로, 身體는瘦瘠할뿐이라그고생이란지내보지못한이는想像도못하리다다가죽엇습니다. 마침그때몸이거북하며婦人科醫에게診察을바덧더니確實치못하나암만해도妊娠갓다고하더니또惡阻로고생하엿습니다.

婦人科에서만난분과이이애기가커이애기하는中에 그이말이『惡阻로고생하시거든우리집에조흔藥이잇스니, 한번試驗해보시오, 잘듯습니다』하더니그後곳書生을식혀갓다주엇습니다(中略)『錠劑わかもと』라는

이런 藥이 라면 趣味먹엇든들, 그런고생을 안이하엿슬것을, 잇드, 하고그後로는 每月제지안고먹엇습니다. 그後分娩에惡阻갓흔것은, 이커버리고, 容易하게二女를順産하엿습니다. 子息셋中에體格도第一조코, 國力도활신낫다고박게서도가쎄합니다. (後略)

朝鮮內政府所藏米 第三回賣却要綱
米穀事務所發表

政府所有朝鮮米第三回賣却은左記에依해實施하기로決定함

一、賣却豫定數量
玄米 約五萬石
正租 約壹萬五千石
賣却場所別賣却豫定量은追後廣告

二、賣却時期
現品及見本陳色 昭和八年七月二十九日
保證金受付 昭和八年七月二十九日
申請受付 昭和八年七月三十一日
賣却決定 昭和八年八月二日

三、賣却場所及受渡所
賣却場所 京城
賣却米受渡場所(左記各地에있서政府指定倉庫) 仁川、鎭南浦、群山、群山、木浦、釜山、釜山

四、賣却米種類
追後廣告할政府賣却米麥에記載한昭和七年朝鮮産의玄米及正租로함

五、賣却方法
入札形式에依해政府의賣却豫定價格以上申請에對해 最高價格의申請으로부터順次約定해賣却豫定數量에達하기까지賣却하기로함

六、一口申請數量
玄米 同一賣却番號의것은五十叺以上으로함 但賣却現品의事情에依해增減이있슴
正租 同一賣却番號의것은正味五千斤以上으로함 但賣却現品의事情에依해增減이있슴

七、保證金
玄米에있서서는一叺에對해金一圓以上 正租에있서서는正味百斤에對해金五十錢以上으로함

八、受渡期間
賣却決定日로부터二十日間으로함

米穀問題로 官制를變更

米穀問題의重要化와 事務量이增加하게됨에따라現在農林局農務課第二農産係로부터分離하야 獨立한一課로할것이라는說은昨年朝鮮米問題가擡頭된當時부터提唱되여 農林局에서多數으로考究中이던바 이즈음農務課를二課에分割하기로決定하고 그官制는二十八日官報로써發表하기로되엿다 即現在의農務課農政係、畜産係、第一第二農産係、肥料係、穀檢係를一括하야 農政을主로하는것과 生産을主로하는것의二課로分割케되는것이나同時에現在의官房課(審議室、外事課、文書課、秘書課、會計課)도一部構成을變更하여六課로하게될것이다

北道의燒酒統制 釀造界反對氣勢
貸金利子로떼고手數料로떼고 生産者는重重의不利

【特派員洪鍾仁發信】財閥三井의巨手가움즉이고잇는所謂 朝鮮燒酒統制라는것은成興에와서들으니 以外에도一般釀造業者에게 不人氣한事더러그統制內容이란것이 京城서宣傳되든바와가튼一手販賣라던가 한것이안이고 一手委託販賣制를採擇하려는것이고 또그利得의方法이 中間販賣組合을두어가지고販賣手數料를 一度一錢五厘式三十度燒酒에一石當一圓五十錢이라는 利를取하는外에釀造業者에 資金融通을한다는形式으로 産品을一種擔保的典執을하고 貸金業을하야 二重의利를取하려는 相當히狡猾한金融資本家의 高利貸金業者的手段을取하려는것이다 石當販賣手數料 一圓五十錢이란것을成南으로만 보아도 昨年生産高三萬七千石(今年은 五萬石突破)에對하야서도 不少하거니와 全朝鮮의生産三十萬石에對하여 四十五萬圓이라는利益을안저서 먹자는格이다 成南에서는 業者가五十一戶잇스나大概가 不贊成이고 統制에加入하엿다가 萬一에버서날道理가업게되고 衆하야 三井側의統制의손에 들어간糖蜜燒酒의側面攻擊을밧는다면 在來燒酒에는致命傷이라하야 거의不肯하는現狀이다 또成南은今年에意外에도生産量이 增加된것을亦是農村景氣가多少나어진것을말함이라고볼것인데 當局의農村振興運動이禁酒를만히宣傳하는反面에 이와가튼大量의飲酒가잇는것은 興味잇는니야기거리이다

組合의組織이 順調로進捗?
今秋엔統制可能타고

三井京城支店에서目下統制計劃中인朝鮮內西北七道에對한在來燒酒共販은各道에잇서總會組織計劃順調로進捗되며八月中에는平南을筆頭로各道에組合設立을볼것이라고하야今秋부터統制가可能하리라한다

煙草賣上高 本年五分增

菊山專賣局長은 本年度의煙草賣上豫想에關하야말한다

『煙草賣上狀況은 昨年에잇서는 四、五、六月三個月은特殊事情으로 賣行이납버스나 本年에는 前年보다二分六厘假量增加하고잇다 七月中旬갓튼때는 一割强의增加를보히고잇는바 一年度를通하여平均五分假量即百七十五萬圓假量增加하리라고 생각한다 煙草의賣行은景氣如何에依하야左右되는것이 만은關係上本年은滿蒙로農村의 財政形便이조코金鑛熱도熾烈함으로例年보다 賣上增加는틀님업슬것이다』

最近膨大되는 朝鮮內紡績業
朝紡은平壤에繰綿工場設置

朝鮮紡織會社에서는 平壤府內平川里에 道有地一萬餘坪을買收하여繰綿工場을 設置하기로決定한바 棉花不買等의 世界的情勢에鑑하야 朝鮮內에잇서서는棉作獎勵方針의 確立을보게되엿슴으로 將來에는在來棉外에陸地棉도漸次 生産하게될것이며 朝紡에서는이事業을將來의準備로 할것이라고생각되는다 平壤에 工場을設置하여將하고 許可申請이되여잇음으로 一種特權이며紡織工場設置의前提라고도 생각되는것이다 朝紡에서는平壤에紡織工場設置의計劃이 잇다고云謂하여잇다 이리하야棉作獎勵와相伴하야朝鮮內의紡織事業은비로소一般의注目을끌게되엿다 그리고朝鮮內에잇서서의綿布消費高는昭和七年中의消費高는二億七千萬碼에達하여一人當十四碼六分인데 그中朝鮮內生産高는約八千七百萬碼로殘額約一億八千七百萬碼는 日本으로부터移入하고잇다 그러나八年度中에는 四千萬碼의生産能力을가진 東洋紡織의仁川工場이 完成하게되고 京城紡織에서도織機를增設하여 七百三十萬碼의增産計劃을樹立하야 亦是本年中에는 完成하게됨으로九年度부터는 一億三千四百三十萬碼는 朝鮮에서生産하게될것인바이나 그래도一億三千萬碼는日本으로부터移入할必要가잇는關係上 朝紡의平壤工場設置는 右의情勢로본다고하여도 반다시實現되리라고본다

紅蔘新販路로 日本內를開拓

專賣局에서는 支那方面의日貨排斥으로 人蔘이不賣되는關係로多量의在庫品이잇음으로 今回새로히 日本의紅蔘에販路를開拓하기爲하야 四半斤의小箱을調製하여 三井物産으로하야금販賣식히기로하엿다 右半四斤의價格은二圓二十五錢이라다

사油를對抗해 六社혐핑開始
朝鮮商事도對策講究

朝鮮石油市場은 朝鮮商事會社의露油入荷以來協定六社와의對立이漸漸尖銳化하여 叚油는旣報와가치一『가론』三十八錢까지引下한데對하여 六社側은二十六錢으로二錢을低廉케하여採算無視의『덤핑』競爭을하게됨에六社側에比하야 훨신小資本的立場에處한朝鮮商事로서는 供給者인『사엣트』側의積極的協力이업시는六社와의對抗이困難하게되여 去六月岩本社長永富取締役兩氏가渡東하여駐日通商部『겝슈힌』氏와의사이에契約의 一部改訂에關하야交涉을逢行한바(一)價格의伸縮性을잇게할件(二)積荷前의代金全額支拂을船積과同時支拂로改訂의件의契約이成立한後歸京하엿스나 駐日通商部副代表이며또 多年歐洲에서石油販賣事務로活動하고現在『소유-즈•네푸치』代表『스호도리스키-』氏歸國의 뒤를니여『스』氏以上으로 커다란權能으로서 對日本朝鮮石油關係事務를管掌하고 『겝슈힌』氏는 朝鮮에잇서서의 露油對六社의競爭狀態와 今後의展望을實地視察하고서 百方對策을講究하기爲하야 또는最初의 朝鮮市場視察을爲하야 七月十五日東京發로一週間의豫定으로 朝鮮에왓든바 主로京城에서通商代部支部長『코노와-로푸』氏와가티石油市況 木材市況等에關한觀察을맛치고 二十二日早朝歸東하엿다

米日爲替續落
◇二十八弗六十二仙

【聯合社京二十六日發】本日의 米日爲替는二十八弗六十二仙으로되엿다 氣配閑散

【聯合東京二十七日發】二十七日朝東京爲替市況如左

	賣	買
對米	二十八弗二分一	二十九弗丁
對英	一志二片四分三	一志三片丁

水稻移秧의狀況 預想面積十割弱에相當
七月二十日現在

(農林省發表)七月二十日現在 水稻植付狀況을調査하면 植付濟面積百六十五萬六千九百二十九町八反步로서本年植付豫想面積十割弱에 相當하니前年同期에比해 八萬五千三百三町七反四分八厘의 進捗이다

道名	植付濟面積(町)	同上割合(割)	進捗狀況
京畿	二〇四、九八五、六	一〇、〇〇	良好
忠北	七〇、四四二、七	一〇、〇〇	同
忠南	一六二、一〇三、七	同	同
全北	一七二、九一三、六	同	同
全南	二〇八、九〇二、四	同	同
慶北	一九三、五九〇、三	九、九九	同
慶南	一七三、七八二、九	同	同
黃海	一四〇、六八二、五	一〇、〇〇	同
平南	七七、〇〇八、〇	同	同
平北	八九、六六一、八	同	同
江原	八九、八三五、七	同	同
咸南	五六、四二六、二	同	同
咸北	一六、五九四、四	同	同
計	一、六五六、九二九、八	一〇、〇〇弱	

土地改良總會 五分配를可決

朝鮮土地改良會社에서는 本日午前九時十分부터同社會議室에서定期總會를열고 今期決算案及利益金處分案을上程하다 當務專務議長席에着해原案을說明한後監査役의報告가잇고異議업시可決해同二十分散會하다 利益金處分案如左

當期純益金	四九、七四八圓
(前期繰越六、五二七圓包含)	
그處分은	
法定積立金	二、五〇〇
別途積立金	二、五〇〇
社員退職慰勞準備金	二、五〇〇
役員賞與金	四、〇〇〇
株主配當(年五分强)	三一、三〇〇
後期繰越金	六、九四八

殖銀東拓兩社 長期資金利下
資源利廻가低下해

殖銀、東拓兩社에서는近間雙方協議下에 同時長期資金金利를三厘乃至五厘을引下키로決定햇는데 利下理由는最近兩社에서모다比較的有利한社債를取入케될모양이다 資源利廻가甚히低下한때문이다

勸業銀行總會 八月十日開催

【電通東京二十六日發】勸銀은八月十日總會를開催할配當一割据置決定할模樣

商況(廿七日)

株式 後場 底强

前場 昨日後場軟步로止場되엿든바 今朝日米爲替二十八弗六十二仙으로 一弗三十八仙의暴落을示하엿고 爲替暴落에比하야 스톡은比較的强味가보이든 四分一의低下인五十三弗四分三에 米棉七十五錢高임에不拘하고 東新은昨後引에比하야五十錢低인 二圓七十錢에大新은二十錢高인 百十三圓三十錢에寄付한後 如前히閑散을繼續하며 幾分上伸하야東新은三圓八十錢 朝新은一圓七十錢으로大引止場되엿다

後場 前場低寄高引되엿던바後場에入하야依然保勢로東新三圓九十錢에後寄한後四圓九十錢의高價를내고三圓九十錢으로大引止場되다

外電無活氣에 株界前途益氣迷

米國인프레政策은 한동안아모障碍업시 華盛頓政府의企圖대로着着進行되여와서『아메리카인프레』景氣는完然히成功한듯하더니 一朝英國의弗貨下落에對한 干涉으로 混亂되엿던것이 그後다시 更生의氣勢를보이다가 인제다시委縮됨을보면 米國政府의 確乎的인프레政策도 그自然的制限이잇는듯하다

株界六感

× 日米爲替는 다시反落되야二十八弗七十五仙으로
× 過般米財界反動으로爲替三十弗臺保持難은確實한모양
× 爲替暴落의比例로 스톡아나콘다等은 外電純感을雄辯
× 大阪東京의前引强調로當地도强味를보엿지마는요새市勢라크게바랄것은업고
× 十丁內外의 上下市勢만치엿다 보와야別數가업슬테니山水를따라 避暑가는것이得策일듯

停滯할듯십흐며 그에從하야日本株式界도 特別한큰材料가나가前에는 無活氣의 場面을그대로繼續하리라觀測된다

不買不賣商狀

前週米國株界에 反動的暴落이잇슨後 漸次反撥의氣勢로 보이더니 언제또다시 氣迷環境에싸지고말엇다 其他內材外材를莫論하고 모다不透明한으로 時勢는 一圓內外을 幅으로 上下하는터인데 小戻한에시反落되야 每日가는過程을飜覆하며잇다 그리고酷暑節季니만치大『相場』은거이 避暑를갓슴으로 東京大阪도 取組가만히減少되엿고 京城도亦是가든現象을呈하는터이며 따라서皿然小捕主義에흐르게됨은 不可避의事態이다 그런데主力株東新이 四五日을두고 繼續하야逆日步를示함으로 市勢는底强을示하며 賣買는더욱閑散을呈하게된다

期米 大體軟優

前場 昨後場阪地 二十二圓六十四錢止와共히 十九圓四十二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 二十二圓六十四錢인昨止同樣을據하고 十九圓四十錢인二丁低로寄를始한後 阪地七十五錢으로跳返하엿스나大體는 頭重形勢로結局阪止六十九錢의 小落을示하야

金組聯合會令 八月中閣議決定

【聯合東京二十六日發】朝鮮總督府로부터 拓務省을通하야過般法制局에廻付한 朝鮮金融組合聯合會令案에 關하야는大體同案의骨子의 說明聽取가終了하얏는데 法制局第二部에서審査를施行하게되엿는데 同案은四十個條에亘한條文으로 成立하엿기에 審査에約二週間을要할形便인外에 八月十一日或은十五日의閣議에서 正式決定을보게될것이다 그리하야同案의制定은 朝鮮總督府多年의懸案이엿서 此內容은明治四十年故目賀田男이 當時의朝鮮의財政顧問으로서 赴任할際旣設한金融組合이非常한發達을하야 現在에는全鮮에 六百七十四組合을算함에至하엿다 其間各組合相互間의 聯絡統制의必要가絶叫되여 大正七年朝鮮十三道에 各聯合會를設立하고 各道內金融組合相互間만의 資金의融通其他聯絡에當하엿든데 昭和四年다시京城에 財團法人金融組合協會를設하야 事業의監督에當하는同時에 朝鮮殖産銀行內中央金庫課를設하야 資金의融通에當하게하엿든바 今回此를解消倂合하야 中央에統制機關으로社團法人 朝鮮金融組合聯合會를設立하고 從來의金融組合協會의業務를 引繼하야모든業務의監督並聯絡統制에 當케하는것으로 主한事務所를京城에置하야從來各道에在한 聯合會는그대로 從인事務所로는支所가될터인데 同案의條文中에는組織、權限、監督等에關한件이包含되여잇다

東亞通航組合 朝郵尼崎挾攻

阪濟航路는 朝郵及尼崎의配船中止後 一時小康狀態를保하얏섯스나 最近東亞通航組合이생기어 朝郵 尼崎 東亞의三者鼎立으로 猛烈한競爭을開始케되매 船客運賃은 東亞六圓五十錢 其他五圓으로 崩落하게되얏다 東亞는濟州島人의經營인만큼 他社에比하야 有利한立場에잇스나 그러나 現在도運賃이比較的노픔이아니라 아프로도他船과의競爭이猛烈할것이즉 그將來가매우注目된다

◇今日의市勢 —(廿七日)—

株式(朝取後場引値)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期米(先限後場止値)	仁川 [illegible] 大阪 [illegible]
正租(仁川一斤當)	改良 五錢臺 在來 五錢臺
正米(仁川㊂三等)	八・七〇
綿糸(大阪後寄)	一九九〇〇
生糸(橫濱先限後寄)	八五五〇〇
人絹(大阪先限後寄)	一〇四一〇
고무(FAQ一封度價)	現物三元錢半 先物三〇錢〇〇
爲替(對米)	二八弗半
地金(朝銀買價)	一匁 八・六〇

航路補助費豫算 特別審議로遲延

【電通東京二十六日發】遞信省航路補助(約千百餘萬圓)豫算에關하야는二十七日以後에省議와는別個로審査를行할豫定이나 特히遲延되는것은明年度로서從來의各航路補助가一齊히 公開되는同時 日本郵船그他에對하여 多少의補助增額을行할必要가잇는外에例의新潟北朝鮮間直通航路開設에關件하는 伏木의絶場港爭奪의猛運動에對한政治的解決을하여야되기때문이다

五十錢에止를止하엿다

後場 株式高에따려 阪寄十一丁高인二十二圓七十錢을發하고 當地는僅히 二丁高인十九圓五十二錢으로寄한後 引續軟步를示하다가 別段파如히大引止場되다

阪仁俄然擴軟
阪硬仁軟으로

三百丁餘의縮鞘이 今朝阪地 二十二圓七十錢臺로突返함을따라 當地亦幾分隨應하엿스나 比較的伸悩하야俄然約三百二十丁으로 擴軟되엿다 阪地此兩地의事情을綜合하면 阪地는土用의無事經過와 政府買菴의失望人氣가濃厚하야 多少賣氣를助長하엿스나 東北地方의旱魃로買氣滋生할과如하며 朝鮮은中部地方을除한外에는 大體天氣의好順을繼續하야 本年米作은 二千二百萬石豫想으로 昭和五年度의 一千九百餘萬石에 不下할것이라는 豐作의謳歌를 呈하고잇다 日本地方의一部旱害가 어떠한 程度인지는 確言키難하나 日本도總體的으로通하여본다면 大體肯田豐의樂觀狀態임으로 朝鮮의豐作豫想과相談하야 結局은又復數段의瓦落을 告하기가十居八九일것갓다果何如?

朝鮮米挪下가 又復壓迫加重

農林省에는 這般以來의米價低落에鑑하야 朝鮮米의 第三次挪下를 急遽하는 觀이不無하더니 結局은約六萬石을 挪下하기로決하고 第四次에는二十五萬餘石을一時挪下할方針이라한다 强氣側의挪下는 何等의消息이 업고 朝鮮米의 買替는 一層壓迫을加할것은明若觀火일것이다 端境期의 一千萬石은過剩은새삼스러히 말할것도업스나大體端境期로서의 如斯한數字를보이게됨은 未曾有의現象이라할수잇스며 從하야本年米의實彈戰은依然히 만이지안코當中兩間의賣方으로서 實米를整備하고 最後의渡米를新行할모양

米豆餘話

◇ 今朝大阪地는무슨큰强材나發生한것처럼十數丁의突高를示하더니 畢竟은伸悩

◇ 當地도阪地高에 牽引되여幾分高價를示하엿스나 大體商勢가軟優로 阪仁鞘가三百二十丁으로俄然擴大할뿐

◇ 朝鮮의中部地方의 旱魃가업지안흐나 米食國을總括하여보면 大體天氣의良好로豐作을豫想

◇ 日本米의買替는 소리도냄새도업고 朝鮮米의第三次挪下만을發表

◇ 그不敗는 約六萬石으로渡米化할當中兩限의 實米三萬石을加算하면 約九萬石

◇ 以上九萬石의實米가市中에나타나는때는 實勢壓迫의市勢가또한展開되엿다。

◇ 現在의實米壓迫과 未來의豐作을總和하여보면 暴悍의强氣御으로도賣方針을否定하지는못할듯。

各地正米

▲京城强調 淸算强과當地賣物一向업서都賣側도賣氣强코庭際白米商의買物散見되야人氣强調㊂三等八圓七十錢四等八圓六十錢

▲仁川强含 期米高을眺하며日本注文不寥으로 閑散을呈하엿는대 期米高에伴하야大體人氣는 强硬㊂三等八圓七十錢 四等八圓六十錢으로品떠러서는 十錢을强含

▲釜山保合 出廻二千叺 期米小戻햇스나 地場及日本이 모다買氣薄으로 閑散保合으로 ㊂三等九圓丁四等八圓八十錢으로千八百八十一叺의成立 大豆況=環境低迷와連日降雨로 買氣薄小口成立이나少잇는以外 別段人氣가나지안하서市況은閑散하지만底意强으로市勢保合

▲大邱引締 日本期正米의强調로賣物도杜絶되야十錢을引締㊂三等九圓十錢四等八圓七十錢唱

▲木浦保合 出廻無挪下로好賣行은期待出來치못하나頭上不良에衆하야産地出廻村絶이며賣物出盛에市況은㊂三等二十圓丁四等十九圓九十錢高에手堅保合

▲群山强硬 出廻一輛期米好勢로人氣振作되야小口實需買로硬化㊂三等九圓丁四等八圓九十錢으로十錢高

▲鎭南浦不味 好順을眺하고買進不振이며 實需筋의小口買에商談余氣乘薄인데㊂三等九圓七十錢 四等九圓五十錢으로無味保合

堂島前場情報

【商通大阪發電報】納會接近으로 歡派는近期玉整理을하고 朝鮮側東京側 東筋正米側은乘換햇다 거긔對해神戶側合薄側地場目前師는 買進하고正米側京都側地場은處分햇다

滿鐵社債借換 四分五厘과ー

【商通東京發】滿鐵第二十四回 第二十六回社債計三千五百萬圓은 四分五厘과ー로借換發行코자決定햇다事業會社의社債四分五厘과ー는이것이처음이다

朝窒日窒增配

朝窒日窒兩社에서는硫安市勢昂騰과朝窒興南工場의操業이今春來順調로行해五月以降은日産半均硫安一千屯硫燐安百五十屯을製造해서創業以來의好成績을보이는데다가延岡의벰벨그火藥興南의파라핀延安의石炭液化等副業製品이爲替高의思惑으로全操業을햇슴으로今期는他社同樣增配할模樣이다

製粉共販組合 建價를引上해

【商通大阪發電】製粉共販組合은建價를五錢引上해 東京三圓五十五錢 地方三圓五十三錢으로公表햇다

朝取短期 (廿七日)

東京現株

大阪短期

東京短期

算定代引日步

朝取長期

大阪長期

朝取期米

朝鮮各地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朝取各限値合

京城正米

仁川正米

仁川大豆

大阪市中在米高

大阪綿糸

大阪綿花

橫濱生糸

大阪人絹

大阪砂糖

京城綿糸布市勢

滿洲商況

海外砂糖

朝鮮金買入價

對外爲替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日本金利

京城手形交換

海外經濟

鰯油冲値

鰯搾粕冲値